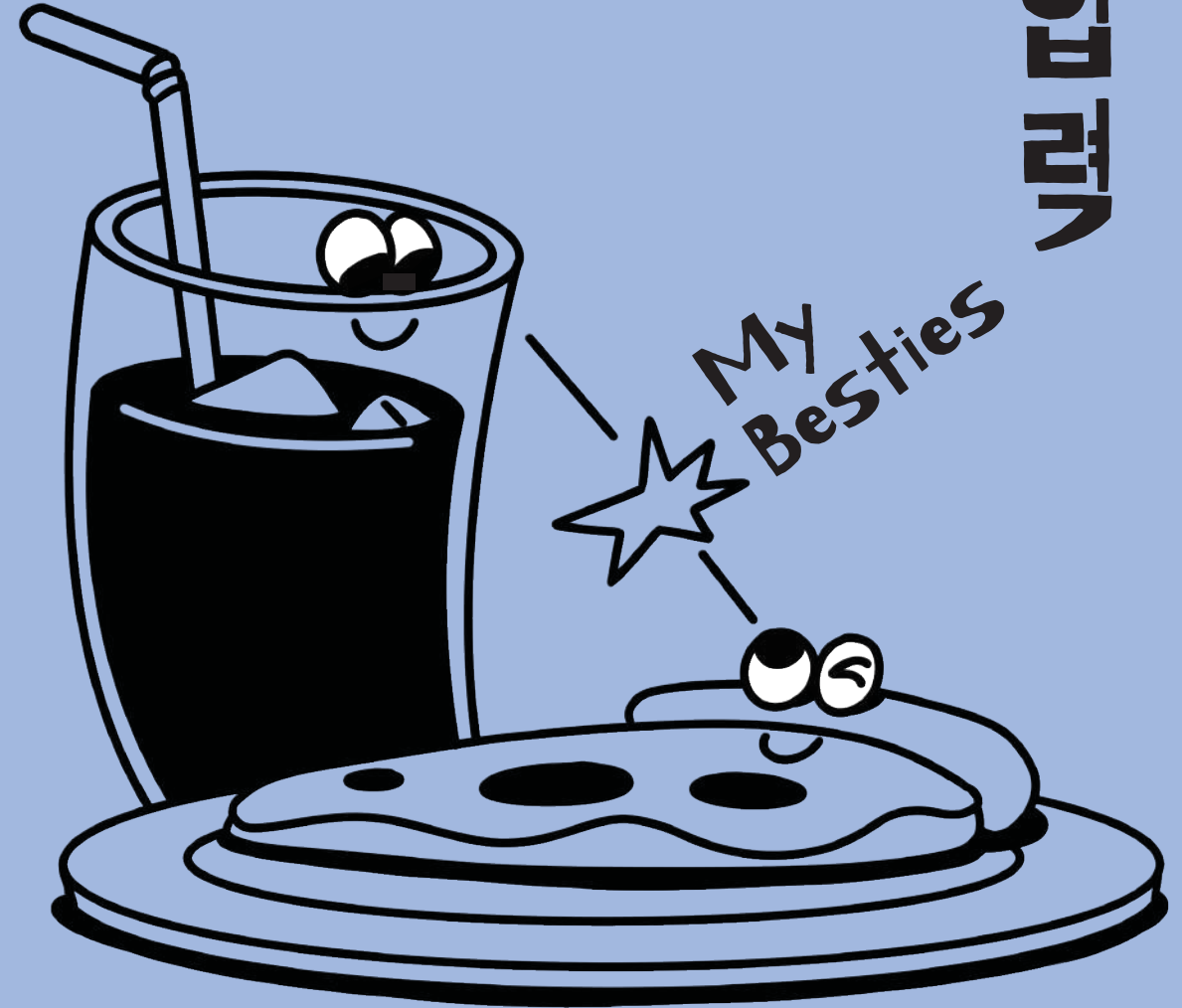


2024.  
February  
vol.462

—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힘

02  
한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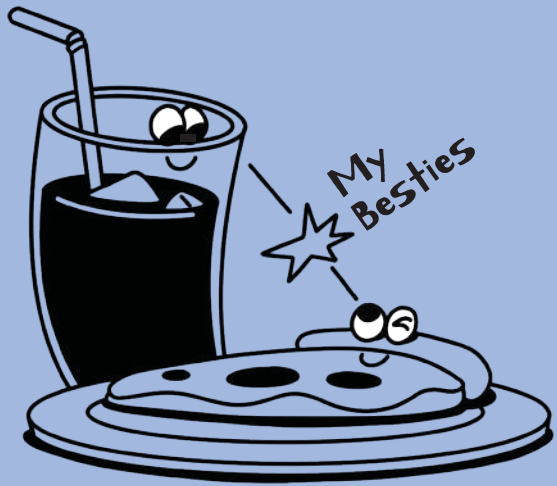
<with IBK>는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 Synergy

서로를 믿는  
순간,

더 넓은 세계가  
우릴 기다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발 맞추는 여정**

IBK가 존재하는 이유

# Contents

2024. February  
vol.462

내면의 힘(력)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심)을 나누는  
IBK 시너지, 두 번째

# 화합력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 2024년 2월 1일  
발행인 |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 조민정, 김태경  
편집위원 |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 더에이치(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8

## 에세이

어떤 특별한 사람은 행성 하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12

## IBK 양케이트

동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IBK인들의 친화력 비법은?

20

## 타인의 생각

조화와 화합으로 이루는 건축

26

## IBK가 만나다

삶과 음악의 '공존'으로 되새기는 '함께'의 의미 가수 김수찬

32

## 체크리스트

똑같은 일상에서 활력 찾기! 나의 어울림 지수는?

34

## IBK뜨끼

일로 만난 사이에서 오래오래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이로! ②서울 편\_고구려양고기

40

## 그곳에 가면(국내)

잔잔한 바다, 마음 따뜻해지는 섬 통영 연대도

46

## 그곳에 가면(해외)

블루라군 녹아든 '에코투어의 섬' 호주 로트네스트 아일랜드



52

## IBK산 ②

산에서 비바람 맞아봤어? 광주 무등산

60

## IBK버킷리스트

터프팅, 그 감각적인 손맛의 세계

66

## IBK동호동락

암벽을 오를 때가 제일 행복해! IBK동호회 '몽키즈'

72

## 그때 그날 한 컷

2월에 일어난 이야기

74

## 헬스 케어

건조한 날씨, 당신의 눈은 안녕하신가요?

76

## 요즘, 시선

회사를 '나답게' 다니다 '편입플로이먼트+프리티저족'

80

## IBK 히어로

고객의 성장을 책임지는 IBK어벤져스 개인어신부

90

## 히든챔피언

당신의 삶에 건강 한 스폰 '그릭데이' (주)스위트바이오 오종민 대표



96

## 당신의 품격

10%의 기적으로 런웨이에 오르다 YG케이플러스 '박지영 모델'

102

## 창공, 날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IBK창공 기업 메이저맵, (주)바크, (주)소프트브라운, (주)사운드플랫폼

108

## 잡학 사전

프로탄산러마저 솔깃한 클라의 첫 페이지

110

## 우리말 한 걸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의 완성은 '갯벽'한 맞춤법

112

## IBK뉴스

이달의 뉴스

114

## 이달의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117

## 부록

알쓸생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속 꿀!팁!



어떤 특별한 사람은 행성 하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지구에서 한아뿐』中-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말보단  
‘함께할 때 더 멀리 간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지금의 나를 응원하며, 미래의 나를 믿어주는 힘.

눈빛으로 상대방을 지지하며 나아갈 희망을 주는,  
여러분에게 있어 행성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조차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건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아닐까요?

‘괜찮아.’  
‘나도 겪어봤어.’라는 함께의 언어로 서로를 토닥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넓은 바다를 향해갈 수 있을 겁니다.



# “혹시, 너 E야?”

## 동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IBK인들의 친화력 비법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볼 수 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직장생활이 외로워질 수도 있는 법. 동료들과 가까워지는 나만의 방법을 IBK인들에게 물었다.



**1위** 다 들어줄게! 39.26%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 했던가? 동료와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IBK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바로 경청이었다. 동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동료와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아침 인사를 반갑게 하고, 동료들의 말에 크게 반응해주고, 먼저 말을 거는 등 사소하지만 효과 만점인 방법들! 또 동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IBK인들도 많았다. 내일 아침에는 동료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보자. 동료와 가까워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쉬울지도 모른다.

#공감과\_경청 #토닥토닥\_위로하기 #배려 #웃겨주기



**2위** 맛있는 게 최고! 21.49%

식구는 밥 식(食)에 입 구(口)를 쓴 한자어다.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많은 IBK인들이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동료애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맛집을 함께 찾아가며, 피곤해 보이는 동료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 후 소소한 홈파티를 하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깊은 친밀감을 쌓고 있는 IBK인들! 역시 맛있는 음식은 사랑이다.

#점심시간\_맛집탐방 #달달한\_간식타임 #커피사주기



**3위** 내가 도와줄게! 21.47%

바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동료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2위와 버금가는 표를 받은 것이 바로 동료가 힘들 때 도와준다는 의견이었다. IBK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빠 보이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휴가철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있었다. 역시 나의 고생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건 동료들이다.

#업무돕기 #고객응대\_먼저하기 #대직자\_사후관리 #적극지원



**4위** 너에게 줄게! 8.58%

누군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무언가를 선물하는 것은 꽤나 송고한 일이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챙기기도 바쁜 세상인데, 누군가를 떠올리며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IBK인들은 열쇠고리 같은 소소한 물건이나 기프트콘을 선물하며 마음을 나누다고 답했다. 또 나만 알기 아까운 생활의 지혜나 꿀팁 정보, 아낌없는 칭찬과 같은 선물로도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마니토 #감쪽선물 #꿀팁공유 #아낌없이\_칭찬하기

# How to be

# Friendly



저희 지정은  
직원들 집을  
들며 작은  
휴파티를  
합니다.  
#MBC지점 류혜원

항시 솔직하게 대하고,  
상대방에게  
동감하는 것~!  
#일산성석지점 유관현



휴가 눈치 주지 않고 맘 편히 다녀올 수 있게  
배려해주기! 맛있는 것은 나눠 먹기!  
#천안아산역지점 기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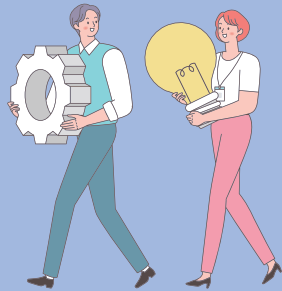
뭐니 뭐니 해도 업무를  
열심히 도와주는 게 최고!  
#공도지점 황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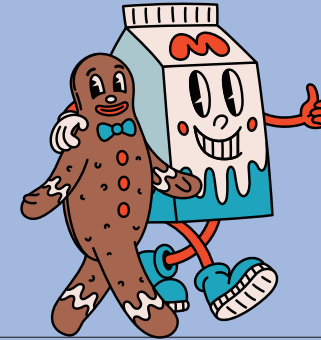
주말에  
어떤 술안주 먹어야  
할지 공유하기 :)  
#삼성동지점 강성희



힘들 때 도와주기!  
말없이 조용히 다가가  
챙겨주고 도와주기!!  
#서초중앙지점 강보승



아침마다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기!  
#목동WM센터 박수미



긍정적으로 소통하기!  
#대전지점 임수민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보고  
비벨 때 항상 도와주기!!  
#미음산단지점 박혜민

최신 유행하는 먹거리  
공수해서 함께 먹기! 편의점  
사장님과 친분을 쌓아 물건  
들어오는 날 기다렸다가 눈썹  
휘날리게 받아와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으니 확실히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  
#삼성동지점 김영은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지내는 동료들. 지치고  
힘들 때 달달한 간식을  
쓱 건네주기 위해  
서랍에 간식 창고를 늘  
채워둡니다^^ 우리 힘내요!  
#남대문지점 고인실



전E요요~! 공감대 형성이 가장 포인트! 동료의 정보를  
파악해 좋아하는 음식이면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같은  
워킹맘이면 노하우 공유하기! 공감대 형성하며 서서히  
다가가는 게 노하우입니다!  
#강서중앙지점 김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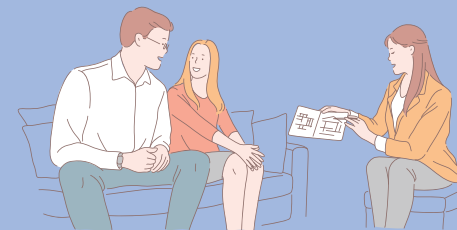
동료의 소소한  
기념일이나 가족들의  
행사를 알게 되면 마음을  
담아 선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생각하지  
못한 선물에 감동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부산WM센터 정현희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기  
#동수원지점 이태훈



저만 알기 아까운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고 알려줍니다^^  
#청담동지점 김은림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기  
#의왕지점 석정민





점심시간을  
맛집에서  
급번개하는 친구  
만나는 것처럼!!

#김포지점 이현경



아침 인사를  
반갑게 하고  
주고받는다.  
#광명지점 김은정



모두가 피곤한 아침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좋은 아침~!"을 외치며  
서로 파이팅합니다.  
#기업디지털사업부 황재용

가끔 간식 가져와서  
나눠 먹어요^^  
한국인은 같이  
먹으며 친해지는  
정미 있잖아요.

#워커힐지점 정소영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물어보기

#수원고색지점 홍연경



좌절하는 동료가  
있으면 옆에 가서  
위로해줍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제천지점 김진혁



항상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고,  
큰 리액션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연금사업부 정용석



재밌는 얘기로  
팀원들 배꼽 빠지게  
해주기!  
조심하세요!  
배꼽 떨어질래!  
#데이터센터 김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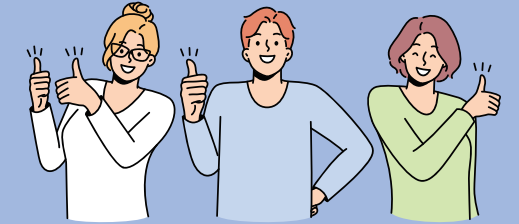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생일 파티하면서  
맛있는 거 먹기!  
#울산남외동지점 정신욱

맛집 공유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친밀도를  
높입니다.  
#IT기획부 이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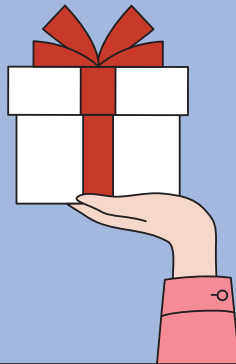
평소에 농담 자주  
하고 가끔 팀복권  
활용해서 손 편지  
전달  
#하안동지점 김경일

헤어스타일이나 코디 등을 칭찬한다.  
업무처리 스타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인천동부지역본부 양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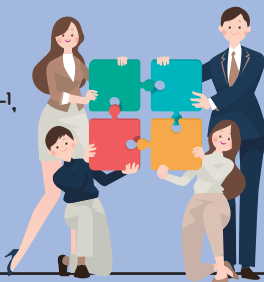


소소하지만 필요한 선물,  
열쇠고리 등을  
선물해요!

#과천지점 이양희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고객 응대도 내가 먼저!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기!  
반대로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을 테니,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직원에게  
미루지 않기도 중요합니다.  
#산본역지점 이민영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말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위주!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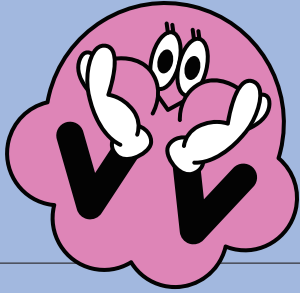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것이  
동료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중계동WM센터 조미연



웃겨주기 ^\_\_\_\_^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모짜렐라 헤헝

#개인고객부 김연지



무조건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나눠주고  
같이 먹는다.

#명동역지점 정한솔



아근이나 회식 다음 아침 힘들어하는 직원을 위해  
커피와 과자를 챙겨준다.

#마산내서지점 이상욱



점심에 맛집 찾아가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욱 친해집니다\*^^\*

#천안아산역지점 성새민



자리를 좀 더 당겨서 앉기.

가까울수록 대화의 기회는 더 많아~

#IT그룹데이터센터이전팀 김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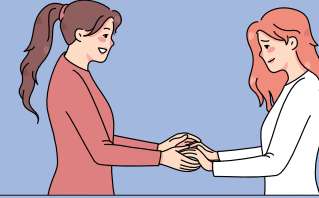
재미있는 드라마 공유하기!!  
〈이제 곧 죽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중부지역본부 이수희



애로사항, 불만 들어주면서 맞장구치기  
공감해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북돋아 주기

#동대문지점 이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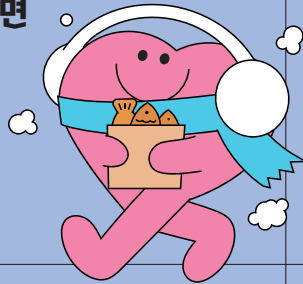
주기적으로 마니토  
모임을 통해 필요한  
선물을 서로  
증정하며 격려와  
칭찬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역곡지점 이수민



콩 한 조각도  
부서원과 나눠 먹으면  
행복바이러스  
퍼집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이해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울산공업탑지점 박신영



소소한 일상 이야기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취미나 관심사 공유!

#강남지역본부 황윤주



기분 중의 기분,  
예쁘게  
인사하기!!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정소희



취미생활 함께하기

#사상공단지점 윤수현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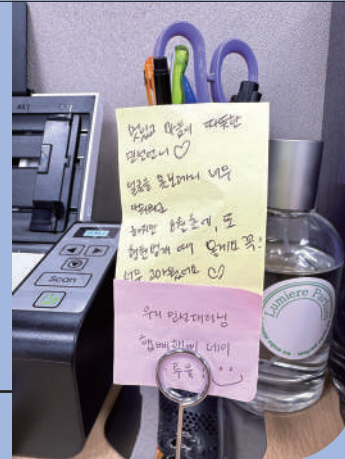
#서서화지점 김기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뭐 도와드릴까요?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말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완충제 같아요!  
제 옆에 와줘서 함께 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하영대리님♥

#강남지업금융센터 박민선



상대방이 좋아하는  
달달한 간식이나 커피  
사주기!! 상대방이  
대직자일 때 사후관리  
같이 해주기!!

#신당역지점 김은정



## 조화와 화합으로 이루는 건축

‘건축’이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건축가들은 여러 존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 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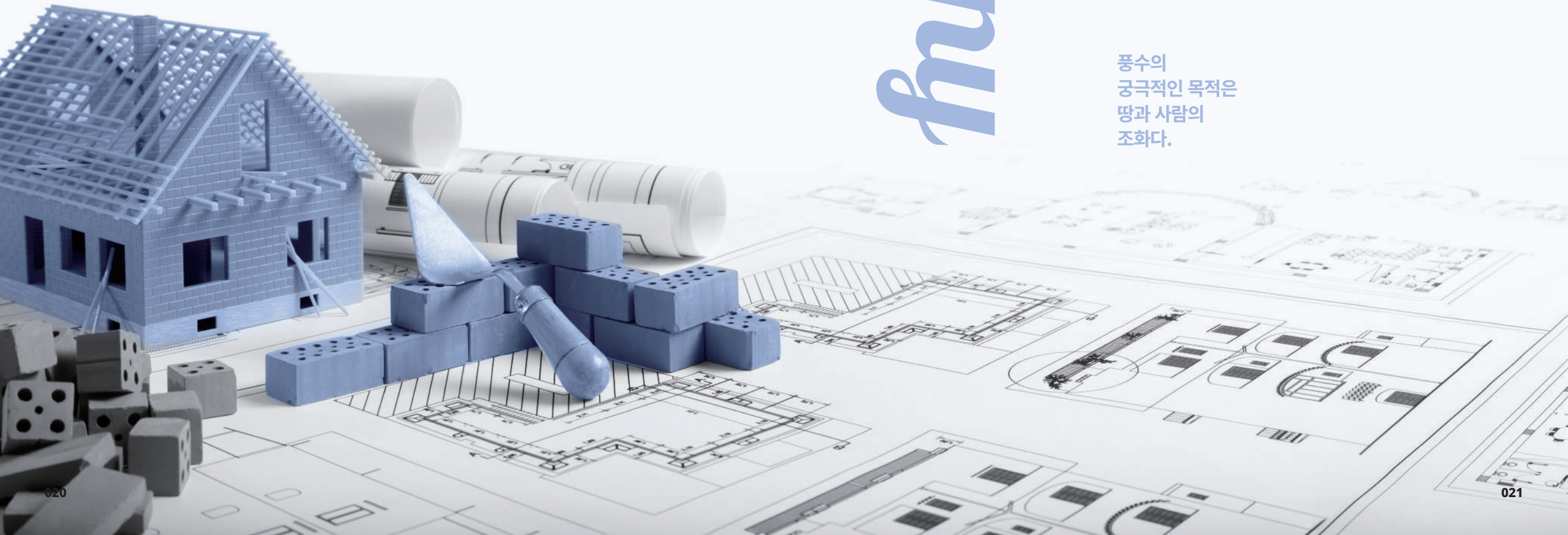
### 자연이 주는 안정적인 멋

건축을 한다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이상의 자아가 만나는 일이다. 우선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자아와 그 집을 설계하는 사람의 자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집을 허락해 줄 땅의 자아이다. 물론 사람의 이야기는 귀가 있고 머리가 있으므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땅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 없다. 땅이 입이 있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어 글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는가. 그래서 땅의 의지를 모른 채 사람이 원하는 방향만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국 사람과 땅이 원하는 바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집이 지어진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풍수지리일 것이다. 풍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과 사람의 조화이며, 큰 건축이란 ‘큰 자연’과 사람이 화합하여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몇 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대학의 초청을 받아 일주일 동안 머물며 강연을 하고 학생들과 실습 스튜디오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업무 때문에 미국에 다녀올 때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 나라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왔었지만, 이번에는 시간 여유가 있어 여기저기 구경을 할 수 있었다.

풍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과 사람의  
조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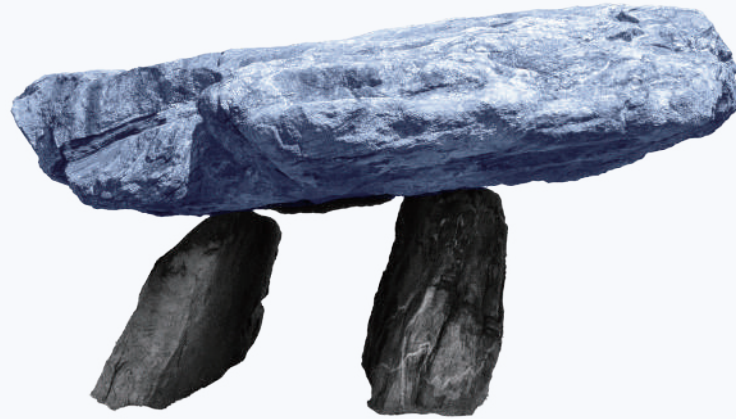
천천히 거닐어본 미국의 도시 풍경은 상상하던 모습과는 좀 달랐다. 어떤 멋진 장소를 스펙터클하고 빠른 속도의 홍보 영상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며 실망하는 경우처럼, 예전처럼 아주 새롭고 신선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사람들도 말이 통하지 않을 뿐이지 마치 늘 만나는 동네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머무는 내내 무엇이 하나 빠진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대학가 노천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문득 주변에 산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평생 서울에서 고개만 돌리면 사방에 있는 산이 빼꼼히 쳐다보며 눈을 맞추는 환경에서 살다가, 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 그런 허전함을 느낀 모양이다.

### 건축의 출발점, 땅

도착하고 며칠 동안 우리를 초대한 대학의 배려로 필라델피아의 오래된 도심에 구경하고 건축물을 보고 학생들을 만났다. 그리고 예정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넓은 강연장에서 한국의 건축에 대하여 강연했다. 내용은 우리나라 자연에 대한 설명과 그런 자연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진 한국 건축의 특수성에 대한 것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다.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은 “건축에서 왜 땅이 중요하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걸 묻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다. 자연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 지리 환경의 차이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들에게 나는 오히려 반문했다.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따로 설명해야 하는가. 건축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건축의 출발점이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땅 아닌가?”



땅은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건축의 출발점이며,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아주 특이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화산 활동이 거의 끝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땅이다. 전 세계 공룡의 발자국과 고인돌의 반 이상이 우리 땅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오래되었고 지질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 자연과의 조화는 당연한 이치

지리 시간에 배운 대로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보니, 국토의 면적은 22만 평방km로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주름이 많아 실제 표면적은 무척 넓은 땅이다. 골이 많고 깊으니 사면도 많은 땅이다. 그리고 그 산과 들을 이루는 기반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인 화강암이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온은 혹서기에는 영상 40도, 혹한기에는 영하 20도로 연교차가 60도 정도 된다. 물론 극한 상황에서의 수치이지만 평균적으로 연교차가 50도를 넘나드는 아주 가혹한 기후 환경이다.

즉 우리의 땅과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수가 수려한 외관과는 달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를 품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은 자연과 정면 대결을 한다거나 자연을 압도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무모한 짓을 포기하고 땅과 타협하고 자연과 상생의 길을 선택해왔다.

흔히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처럼 웃기는 말이 없다. 자연은 인간에 비해 훨씬 오래 존재했고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하룻밤 내린 비에 흠이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을 타고 넘어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사고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장소는 원래 물이 흐르는 자리였는데 흠으로 물길을 메운 뒤 넓은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고 그 뒤편에 아파트를 세웠다. 그런 인간의 자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은 원래 가던 길로 다시 흘렀고, 결국 다치는 것은 연약한 존재인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자’로 구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Truth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 풍수 사상의 근간이다. 멀리는 신라 말의 도선국사부터 조선 초에 활약했던 무학대사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땅에 가면 발복을 하고 아들을 낳고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삶의 자잘한 요령보다는 국토를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어머니로 본 것이다. 땅에 늘 감사하며 잘 모시는 자세, 다시 말해 땅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나라의 전통 풍수이다.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물로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도시 계획이다. 14세기 말 새로 개국한 조선의 수도 한양의 도시 계획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수도들과 사뭇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교토나 북경, 혹은 유럽의 수도들은 도로와 시설의 배치가 정연한 기하학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위계가 뚜렷하고 도시 계획의 의도가 한눈에 잘 들어온다.

**건축, 만드는 것이 아닌 생겨나는 것**

반면 한양의 도시 계획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이상하다. 큰물인 한강과 작은 물인 청계천이 서로 방향을 엇갈리며 가로지르고, 마치 싹틔줄이 퍼져있는 인체처럼 가느다란 물길들과 골목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 그 안에 담긴 원칙이나 의도가 쉽게 읽히지 않는다. 그런 특이한 형태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이유는 원래의 땅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있던 산의 흐름과 물의 흐름, 즉 자연의 질서 안에 인간의 질서를 아주 얇게 입혀 놓았기 때문이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일본의 미술평론가이며 공예연구자이다. 그는 특히 조선의 예술과 공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고, 많은 저작을 통해 조선 예술의 우수함을 예찬하였다. 그는 식민지 지배하에 사라져가는 조선의 문화적 자산에 아쉬움과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표현하곤 했다. 그가 쓴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서정적인 측면과 애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전통미에 대한 관점은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뛰어난 통찰력으로 본질을 파고드는 예리함에 눈이 뜨이는 부분이 많다. 그가 쓴 글 중 깊은 인상을 받았던 대목이 있다. 조선과 일본 장인의 작업 성향을 비교하며 두 나라의 미의식을 비교한 글이었는데 아주 명징하다.

그 글은 “예를 들어 나무를 켜서 찻잔 받침대를 만든다고 하자.” 하며 시작된다. 일본의 장인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나무를 신중히 고르고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그리고 작업 도구를 정돈하고 날을 세워두고 맵시 있게 나무를 깎고 정성껏 닦아 광택을 낸다. 완성된 찻잔 받침은 약간의 흠도 없이 완벽하다.



**건축이란 결국 사람과 땅 그 둘을 중재하는 일이다.**

한편, 조선에서 나무로 찻잔을 만든다고 치자. 나무는 쉽게 손에 닿는 것을 고른다. 그리고 같은 굳이 날카롭게 날을 세우지 않는다. 웬만큼 드는 칼이라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 찻잔 받침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찻잔 받침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느낌일까? 무네요시는 결론을 이야기한다. “조선의 물건에서는 인간인지 자연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일을 한다. 좋고 나쁘고를 넘어선 경지에서 물건이 생겨나는 것이다. 만든다기보다는 생겨난다고 하는 편이 더욱 알맞다.” 생겨난다는 말이 무척 와닿는다. 사람이 만들지만,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나무의 결대로 마음의 결대로 크게 만드는 그런 미학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자세였을 것이다.

우리는 건축 실무를 시작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많은 집을 지었고 많은 건물을 세웠다. 그러는 동안 얻은 결론은 건축이란 결국 무언가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땅을 만난다. 그리고 사람과 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둘을 중재하는 일을 한다.

이제 세계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시각으로 보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이용물로 보던 과거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인간과 대등한 혹은 더 큰 존재로서의 자연에 대하여 경외하고 화합을 중시하던 관점과 태도가 얼마나 앞선 생각이며 지혜로운 생각인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 Natural

**글. 임형남(위), 노은주(아래)**  
임형남, 노은주는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의 공동대표이며, 임형남은 현재(사)새건축사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금산주택’, ‘루치아의 딸’, ‘북촌길 및 계동길 탐방로’, ‘제마와나선원’ 등을 설계했고, 한국공간디자인대상 대상,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상 등을 수상했다. 가온건축은 2023년 미국의 건축 포털 아키텐타이저(Architizer)에서 뽑은 한국 건축사사무소 1위에 선정되었다. EBS <건축탐구-집>의 프리젠티어로 활동했으며,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에서 건축칼럼을 집필한 바 있다. 《집의 미래》 《나무처럼 자라는 집》 등 18권의 저서가 있다.

# 삶과 음악의 ‘공존’으로 되새기는 ‘함께’의 의미

## 가수 김수찬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빠져든다. 모든 것을 불문한 채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음악의 힘은 가히 대단하다. 음악으로 세상을 관통하며 음악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가수 김수찬. 그는 오늘도 무대에 오르며 삶이 담긴 노랫말로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Q. 안녕하세요. 2012년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에 입문하셨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김수찬입니다. 데뷔한 계기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웃음). 하지만 답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고등학생 때 데뷔했어요. 많은 장르 중 트로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귀염받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TV에 나온 남진 선생님의 무대에 매료됐고 남진 선생님에게, 그리고 트로트의 세계에 더욱 빠지게 됐어요. 그 후 남진 선생님에 대해 계속 공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무대 매너를

배우게 됐죠. 관객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는데 그 감정이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Q. 2013년 <히든싱어2> 남진 편에 ‘꽃미남 남진’으로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셨는데요. 그 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히든싱어2>는 김수찬 님에게 어떤 기회였나요?**

데뷔 후 출연이라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수 김수찬’이 아닌 ‘남진 모창 가수’라는 타이틀이 제 이름 앞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김수찬’만의 매력 있고, 감성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출연에 대한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부담을 내려 놓은 결과,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했고 저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출연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에 대한 자존감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계기이자 가수 김수찬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Q. 데뷔 12년 차인 만큼 정말 다양한 무대에 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무엇인가요?**

선배님들에 비하면 저는 하룻강아지이고 아직 갈 길이 먼 가수이기에 한없이 쑥스럽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무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 모든 무대가 전부 소중한 거예요. 그 무대들이

하나하나 모여 지금의 절 만들었으니까요. 음... 가장 처음 섰던 전국노래자랑 무대도 여전히 생생하고, 남진 선생님하고 섰던 무대, 전역 후 팬분들과 함께한 콘서트 등도 아직 또렷해요.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날을 하루 딱 꼽으라고 하면 주마등처럼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듯 무대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한 매일 또 새로운 무대에 오르기에 기억에 남는 무대도 매일매일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Q. 음악은 하모니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와 악기, 댄서들의 화합은 무대에서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김수찬 님이 생각하는 음악의 힘은 무엇인가요?**

음악의 힘이라는 질문은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음악에는 정말 많은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요. 슬픔을 치유하고, 기쁨을 극대화시켜주고 때론



**음악의 힘은 관객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찬 가수**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 2012년 <오디션>으로 데뷔했다. 심금을 울리는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2023년 제대 후, 발매한 정규 앨범 <공존>의 모든 트랙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현재 KBS <아침마당> MC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공유하고 있다.

가까운 친구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가수도 때론 하나의 의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음악의 힘은 단순히 부른다고 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무대에 올라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지만 가수와 악단, 댄서들이 아무리 멋진 무대를 꾸며도 관객이 없다면 완벽한 힘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의 힘은 관객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받을 때 저도 가수 김수찬으로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Q. ‘미스터트롯’ 이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을 화합시킨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노래가 매력적이지만 트로트만의 매력을 뽑는다면, 트로트의 ‘맛’인 것 같아요. 공연장에 가면 트로트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주에 맞춰 가슴이 뛰어요. 요즘 트로트도 신세대적으로 바뀌어 신스 사운드나 일렉트릭 사운드를 활용한 트로트도 많지만, 트로트는 워낙 악단이 연주하는 노래라 보니 각각의 악기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큰 것 같아요. 어느 하나 튀지 않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같아요. 삶을 관통하는 단어와 일상과 관련된 단어들 많니까요. 그래서 요즘 공감 가는 가사를 쓰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문학, 비문학 가릴 거 없이 읽으며 세상을 확장 시키고 있습니다.

**Q. 김수찬 님을 좋아하는 팬들 모두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연령대에 따라 팬 관리 비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IBK가 간다!



#### 김수찬이 <with IBK>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벌써 2024년 2월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족분들과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합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분들과 잦은 눈맞춤, 잦은 소통으로 2024년을 더욱 화합 짙은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팬의 마음은 모두 같지 않을까요? 팬을 나이대에 나눠 관리하는 건 화합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웃음). 화합은 그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봤을 때 다가오는 사랑의 힘이 다른 것처럼요.

**Q.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 대결도 하고, 화합의 무대를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경연이라는 부담도 있었겠지만,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팬들을 감동하게 한 회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수찬 님이 생각하시는 화합의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혼자 무대를 채우는 것보다 여럿이 노래를 부르는 게 감동을 배가시키겠죠. 공연뿐만 아니라 기부도 마찬가지로 거고요. 혼자 무대에 오르면 단순히 관객의 박수를 받고 끝나겠지만, 여럿이 같이하면 그 기쁨과 행복을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화합의 장점인 것 같아요.

**Q. 연말연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2023년을 돌아보면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작년 3월, 제대한 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덕분에 재밌고 알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수 김수찬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은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를 꼭 하나 뽑아야 한다면 저는 통런하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존경하는 대선배님들처럼 오랫동안 무대에 오르는 것이 꿈인 만큼 '김수찬' 이름 세글자만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가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To. IBK  
기업은행.

김수찬  
2024. 2. ~

긍정적인 2024년!  
웃음 가득한 2024년!  
여러분이 만듭니다~!

수찬 김 수찬



# 똑같은 일상에서 활력 찾기! 나의 어울림 지수는?

START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나만의 공간에서 살아갈 여유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출발점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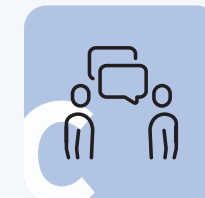
### 어울림 100%, 모두가 내 친구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나의 친구다. 혼자 있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못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의 처음과 끝을 전부 파악하고 싶어 질문 세례를 퍼붓는다. ‘너무 사소한 질문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 업무에 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으므로 그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 어울림 80%, 진정한 사회인

인싸와 아싸의 경계선에 서 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지만, 또 어떨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당신.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힘을 얻지만, 간혹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 심적으로 힘든 날, 가장 친한 사람들을 만나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낸다면 어울림 지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 어울림 50%, 혼자가 편한데...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협동의 힘을 알기에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점심시간, 출퇴근길, 퇴근 후엔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능률을 더 완벽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선 책을 읽고 노래를 듣는 등 차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어울림 30%, 세상의 주인공은 나

오직 나에게만 시선 집중! 사람을 사귀거나 조직과 어울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지도 않다. 행복의 기준이 오직 자신이기에 남의 평판에 마음 쓰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수록 자신의 세계 또한 넓어지는 만큼 옆자리 사람과 오늘 하루 티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일로 만난 사이에서

오래오래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이로!

② 서울 편\_고구려양고기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림계  
만든다. 그리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옛 동료들 만나러 가는  
길에 맛있는 음식이 더해졌다.  
행복한 추억을 쌓기 딱 좋은 날이다.

*It's Happy Time!*



‘IBK트끼’가 더해져 잊지 못할 추억을

아직 곳곳에 눈이 쌓여있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당산역 6번 출구 앞에 4명의 IBK인이 모이기로 했다. IBK트끼 서울 편 주인공들로 선유도역지점에서 함께 근무했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들이다. 먼저 도착한 영업부 김민정 대리와 전략기획부 홍윤호 대리가 한껏 설레는 표정으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다. 진지한 콘셉트로 촬영하겠다는 홍윤호 대리였지만 그의 설레는 표정과 반달 모양의 눈웃음은 숨길 수 없었다. 곧이어 여신관리부 조영기 과장, 연금사업부 서유진 대리까지 다 모아져 손민혁 개그맨의 활기찬 진행으로 IBK트끼 서울 편 촬영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IBK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IBK트끼 서울 편 맛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영등포구 당산입니다! 오늘 맛있는 여행에 함께 할 IBK 4인 나와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내 거! 내 거!



조영기 과장, 서유진, 김민정, 홍윤호 대리의 자기소개 후 영등포, 당산 직장인들의 맛집 골목, 당산 먹자골목으로 함께 걸어가다. 골목을 걸어가면서 IBK트끼에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문자 서유진 대리가 입을 열었다.

“오늘 가는 맛집 식당의 사장님이 기업은행 선유도역 지점 거래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면 의미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어요!”

“모임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각자 너무 바쁘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IBK트끼 덕분에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표정의 조영기 과장이 한마디 덧붙이자 모두가 동의하는 듯 끄덕였다. 추억 가득한 옛 동료들 만나러 가는 길에 IBK트끼와 맛있는 음식이 더해지니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



서울에서 맛보는 징기스칸

당산 먹자골목 입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고구려양고기’라는 간판이 크게 보인다. 근처 ‘허브족발’ 사장님이 운영하는 숨은 양갈비 맛집으로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징기스칸 요리다. 사장님께서 IBK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IBK트끼 촬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IBK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자리를 잡고 양갈비와 함께 냉모밀, 누룽지탕까지 깔끔하게 주문 완료. 불판에 양파를 짹 깔고, 커다란 양갈비를 톱 올리자 IBK 4인의 눈빛이 모두 초롱초롱해진다.

“양고기 먹는 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인 게 맛있는 거죠! 보통 양고기는 찌란에 푹 찌어 먹어야 맛있지 않겠어요?”

“찌란에 찌어 먹는 것도 맛있지만 소스에 담겨 있는 고추를 고기에 하나씩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다른 양고기 집과 다르게 ‘고구려양고기’에는 찌란이 아닌 특제소스가 제공된다. 서유진 대리의 팁처럼 소스 안에 있는 고추가 양갈비와 참 잘 어울려 보였다.



함께 양고기 맛있게 먹는 팁도 공유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하기 전 함께 외치는 구호를 정해보기로 했다.

“정준하 선배님은 먹방을 하기 전에 아무지게 먹어야지~! 라는 시그니처 구호가 있잖아요. IBK트끼 시작 전 외칠 IBK인들의 구호! 어떤 게 좋을까요?”

“양고기 기여브닝!(기업은행)! 맛있게 먹겠넹! 어떡세요?”

요즘 유행하는 ‘은행 플러팅’이라는 밈을 이용해 ‘양고기 귀엽넹! 맛있게 먹겠넹!’이라는 센스있는 구호를 정해준 김민정 대리. 다 같이 귀여운 구호를 외치자 노릇 노릇 맛있게 양갈비가 다 구워졌다.



## 샐러드도 맛있넹!!

###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한 끼

양갈비로 어느 정도 배가 찬 IBK 4인에게 이번 서울 편에서는 특별히 제비뽑기 미션이 주어졌다. ‘5분 동안 못 먹기, 탄산음료 제공, 양고기로 삼행시, 계속 맛있게 드세요’ 각자 4개의 미션이 적힌 종이를 뽑자 조영기 과장의 짧고 굵은 외침이 퍼졌다. 바로 ‘양고기로 삼행시’ 미션이 걸린 것. 모두가 웃고 있지만 조영기 과장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듯 수심 가득한 표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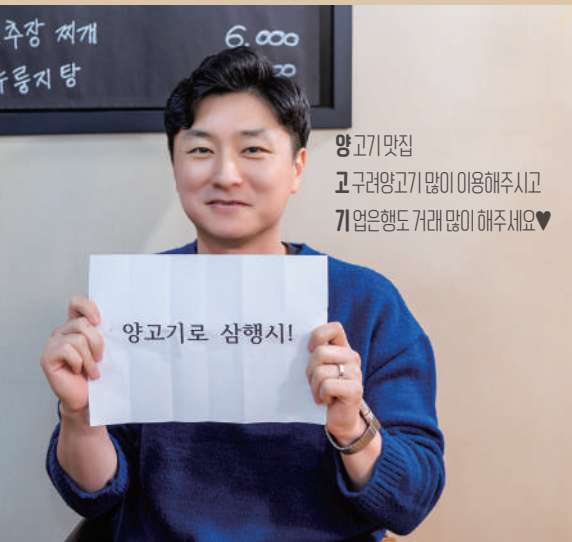
지어 보였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조영기 과장의 양고기 삼행시는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양고기랑 누룽지탕의 조합이 너무 맛있었고요! 선유도역지점에서 같이 근무할 때는 매일 보다가 본점으로 발령 나고서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IBK트끼를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누룽지탕을 맛있게 먹던 홍윤호 대리가 식사를 다 마치고 소감을 전했다. 홍윤호 대리의 초임지였던 선유도역지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봐도 반갑고 행복한 자리가 되는 듯하다.

“IBK인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다 같이 외치는 마무리 구호로 IBK트끼 서울 편 촬영을 마쳤다. 촬영 이후 오랜만에 모인 IBK인들은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운 마음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느껴졌다.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해도 종종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맛있는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오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양고기맛집  
고구려양고기 많이 이용해주시고  
기업은행도 거래 많이 해주세요♥

양고기로 삼행시!

## ‘IBK트끼’에 함께 한 소감 한마디!

### 연금사업부 서유진 대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 일석이조인 IBK트끼! IBK 직원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략기획부 홍윤호 대리

조영기 과장님의 양고기 삼행시가 제일 감명 깊네요 ㅎㅎ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 IBK트끼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ㅎㅎ

### 영업부 김민정 대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원분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여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IBK트끼!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 여신관리부 조영기 과장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다 보니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비뽑기에서 삼행시에 걸린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만 다행히 시도한 삼행시 반응이 괜찮아서 안도했습니다.



### 고구려양고기

생양갈비, 냉모밀, 누룽지탕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8길 8 1층

02-2676-4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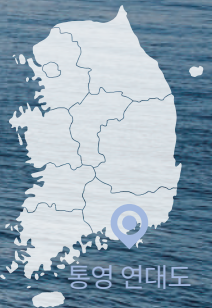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서유진 대리, 홍윤호 대리, 김민정 대리, 조영기 과장

잔잔한 바다,  
마음 따뜻해지는 섬

통영 연대도

# 烟臺島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은 바다로 열려 있다. 44개 유인도와 526개 무인도를 품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는 매물도, 한산도, 추봉도, 비진도 등 보석 같은 섬이 흩뿌려져 있다. 그중 여행 떠나기 좋은 섬이 연대도다. 연대도는 육지에서 가깝고, ‘연대도 지깃길’이 나 있어 걷기 좋다.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 안에서 오순도순 소박하게 사는 주민들의 모습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01 배 타고 들어가면서 본 연대도(왼쪽). 만지도와 연결된 출렁다리가 보인다.

### 만지도에서 출렁다리 건너 연대도로

통영 달아항에 연대도로 가는 배가 다니지만, 연명항에서 만지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연대도로 가는 배편보다 만지도로 가는 배편이 많고, 만지도와 연대도가 출렁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출렁다리 앞에서 바라보는 연대도 풍광은 일품이다. 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들어가는 맛 또한 놓칠 수 없다. 만지도로 가기 전, 연대도 지갯길을 걸으며 섬 구석구석 둘러보고, 하룻밤 묵어보는 걸 추천한다.

연대도에서 1박을 한 뒤, 연명항에서 작은 여객선을 탄다.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무 미닫이문을 열어야 하는데 꼭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배의 실내는 아담하다. 조타실이 따로 없기에 키를 잡은 선장님의 뒤탄과 창밖의 바다를 번갈아 볼 수 있다. 만지도까지는 불과 15분. 시나브로 출렁다리가 보이면 연대도에 다 왔다는 뜻이다.

만지항에서 출렁다리 이정표를 따르면, 해변 데크길이 이어진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는 데크길을

걷는 맛이 일품이다. 이때부터 연대도가 어떻게 등장할지 마음이 일렁인다. 데크길이 끝나면, 두둥~ 빨간색의 출렁다리가 나타난다. 길이 98m, 폭 2m의 현수교다. 출렁다리 왼쪽으로 원뿔처럼 생긴 연대봉 품에 꼭 파묻힌 마을의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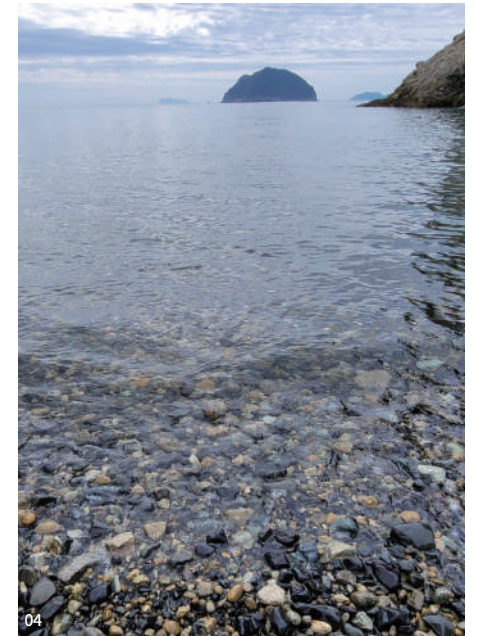
연대봉 꼭대기 위로 큰 새들이 빙빙 날고 있다. 나중에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니,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독수리라고 한다. 아마도 먹이를 찾아왔을 텐데 연대도에서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다. 인간이 모르는 섬의 풍요로움을 독수리는 알겠지.

출렁다리 위에 서면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리 중간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짙은 에메랄드빛으로 빛나고, 물속에서는 진초록의 수초가 하늘거린다. 연대도 마을은 앞으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가 반짝이고, 뒤로 220m 높이의 연대봉이 든든하게 마을을 품어 준다.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봉화와 연기 피우던 연대를 설치했는데, 여기

서 연대도의 이름이 시작됐다고 한다.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보인다. 경로당 이름은 ‘구들’이다.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등을 지지는 어른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경로당을 지나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을 걸어본다. 모든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지만 대문 옆의 문패가 특히나 재미있다. ‘점빵 집으로 불렀어요, 김재기 할머니 댁’, ‘연대도 유일한 담뱃집’, ‘산양 읍내에서 가장 낚시를 잘하는 어부네 집’ 등등.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마을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안녕하세요. 마을이 예쁘네요.” 골목길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말을 붙여본다. “예쁘고 편안한 섬이에요. 구경 잘하고 가세요.” 다정한 말이 건너온다. 자전거가 세워진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막다른 집이 나온다. 빈집이라 슬쩍 들어가 구경한다. 바닥에 조약돌을 깔고, 여기저기 예쁘게 치장한 집이다. 주인이 알뜰살뜰



04 연대도의 자랑인 몽돌해변

02 연대도 섬을 예쁘게 그린 벽화

03 아기자기한 마을 골목길. 골목 끝에 바다가 보인다.



가꾼 흔적이 엿보여 더 안타까우면서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솔솔 솟는다.

골목 끝에 제법 널찍한 몽돌해변이 숨어 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해변 오른쪽으로 우뚝한 기암들이 버티고 있다. 기암은 풍광도 좋지만, 마을에 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소중한 존재다.

### 마을 골목길과 지갯길 걷는 재미

몽돌해변에서 골목길을 따라 연대도 지갯길을 따른다. 나무하러 지게 지고 다니던 길이라 해서 ‘지갯길’이라 이름 붙였다. 지갯길은 산허리를 한 바퀴 도는데, 거리는 2.3km로 1시간 30분쯤 걸린다. 초입에 아담한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모아 마을에 전기를 공급한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들도 많다. 덕분에 전기가 귀한 섬이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

지갯길은 온순하다. 울창한 대숲, 전망대 등이 번갈아 나온다. 길은 곡선의미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구불구불 따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 걷는 게 상쾌하고 군데군데 나타나는 전망대는 시원한 조망을 선사한다. 북바위 전망대에서 안내판에 나온 연화도, 우도, 옥지도, 두미도 등과 눈을 맞춘다. 전망대에서 모퉁이를 돌면 학림도, 저도, 송도가 웅기중기 모여 있다. 그 뒤로 달아항이 보이고 통영의 최고봉인 미륵산이 우뚝하다. 미륵산은 통영의 수호신으로 꼭대기에서 올라 한려해상에 흩어진 섬들을 바라보는 맛이 일품이지만, 바다 위의 섬에서 미륵산을 올려다보는 맛도 괜찮다.

다시 숲길을 따르면 에코체험센터가 나온다. 이곳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숙소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광과 지열만을 이용해 냉난방을 해결했다. 숙소, 캠핑장, 카라반 시설 등도 잘 갖춰졌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몽돌 해변에서 노을을 감상한다.

두 개의 기암 사이로 아주 천천히 노을이 졌다. “배가 다 떠났는데요.” 산책하던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자고 가려고요.” 대답과 함께 숙소 문을 열었다. 창문으로 마을과 바다가 잘 보인다. 관광객이 사라진 겨울철의 연대도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달빛을 머금은 바다에 파도는 없다. 어떻게 섬의 바다가 이렇게 잔잔할 수 있을까. 천혜의 섬이 아닐 수 없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덕분인지 마치 잔잔한 바다 위에 누워 하룻밤을 청한 느낌이다.

### 연대도 옆의 만지도 여행은 덤

다음 날 아침 일찍 숙소를 떠났다. 출렁다리를 건너자 연대봉 뒤로 해가 떠오른다. 연대도가 붉은 후광으로 빛난다. 빛이 쏟아지는 바다는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인다. 연대도의 밝고 따뜻함을 품고 섬을 떠난다.

연대도를 나오면 출렁다리로 연결된 만지도 구경은

05 연대봉 뒤로 뜬 해가 붉은 후광을 두른 듯하다.



06 연대도 지갯길. 호젓한 오솔길을 걷는 맛이 좋다.

07 만지항의 벽화와 잔잔한 바다가 어우러진다.

덤이다. 만지도는 연대도보다 더 작아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다. 만지도 이름은 인근 다른 섬에 비해 비교적 늦게 사람이 입주한 섬이라는 데서 유래해 ‘늦은 섬’이란 뜻을 담고 있다. 또 섬의 형상이 지네와 같이 생겼다 하여 만지도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풍수지리상으로 만지도는 지네에 비유되며, 북쪽에 자리한 저도는 닭에, 동쪽에 자리한 연대도는 솔개에 비유되어 서로 먹이사슬에 있어 함께 번성할 길이라는 설이 있다.

견우길과 바람길 전망 포토존 등 아기자기한 숲길이 끝나면, 만지봉 정상에 닿는다. 정상 아래로 섬 북쪽 해안의 할배바위와 구렁이모양 바위 등 수려한 바위들을 구경하는 맛이 쏠쏠하다. 산길이 끝나면 해안으로 이어지고 곧 선착장에 닿는다. 이 모든 것을 둘러봐도 1시간이 걸리지 않기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섬을 둘러보는 걸 추천한다. 비경과 여유를 품은 만지도를 뒤로한 채 연대도와 만지도 여행을 마무리한다.

### Tip 통영 연대도 가이드

마을 구경, 지갯길 걷기, 연대봉 정상 다녀오기 등으로 섬을 즐길 수 있다. 아기자기한 마을과 호수처럼 잔잔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평화를 선물한다.

### 교통

연명항에서 만지도행 배를 탄다. 연명항 첫 배는 오전 8시 30분. 10시부터 16시까지는 매시 정각에 있다. 여름철에 운행이 늘어난다. 문의는 055-643-3433으로 하면 되며, 만지항에서 걸어서 출렁다리 건너 연대도까지 10분쯤 걸린다.

### 숙소

인원이 많으면 에코체험센터(055-646-2582)가 좋다. 가족이나 연인은 펜션이나 민박 이용을 추천한다. 그중 달맞이펜션(010-9388-5932)은 바다 조망이 좋다.

### 맛집

싱싱한 횡감과 연대도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전복을 이용한 전복해물물회 등을 맛볼 수 있다. 에코파크횡집(010-3596-4848), 외갓집밥상(010-4789-0524)

08 싱싱한 전복이 들어간 전복해물물회가 일품이다.



# 블루라군 녹아든 ‘에코투어의 섬’

## 호주 로트네스트 아일랜드

호주 남서부는 ‘격리된 감동’의 공간이다. 바다와 황무지 사이의 낮선 땅은 푸른 대자연이 외곽을 채운다.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는 ‘친환경’의 타이틀을 달고 에메랄드빛 바다 한가운데 고요히 들어서 있다.



# Rottnest Island





### 자전거로 둘러보는 에메랄드빛 바다

로트네스트섬은 원주민인 아버리진의 언어로 ‘와제몹’이라 불린다. 와제몹은 ‘물을 건너는 장소’라는 뜻이다. 서호주 프리맨틀에서 페리로 30분쯤 바다를 건너면 로트네스트에 닿는다.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바다, 야생동물이 뛰노는 날것의 생태가 섬의 자랑거리다. 로트네스트섬을 소개하는 간판 글은 예상과 달리,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찬미가 아니다. 섬이 삶터였던 와제몹 사람들에 대한 경의와 존중으로 시작된다. 와제몹 원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과 그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와 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친환경 섬인 로트네스트는 ‘다짐의 땅’이다. 부당한 투옥의 장소로 훼손되고 피해를 본 원주민들에 사과하고, 섬을 그들이 누렸던 옛 모습대로 고스란히 보존하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담겨 있다. 섬 안에는 휘황찬란한 리조트가 드물고,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지 않다. 로트네스트 아일랜드가 ‘에코투어의 섬’으로 자리 잡은 데는 깊은 치유의 사연이 담겨 있다.

01 자전거는 섬을 둘러보는 주요 교통수단이다.



02 로트네스트 섬의 마스코트인 ‘쿼카’

서호주의 대표도시 퍼스, 프리맨틀은 친환경 섬인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로 향하는 경우지다. 도심 골목의 와인 숍과 식당들은 ‘오르가닉’을 내세운 메뉴들이 익숙하다. 친환경의 분위기는 섬에 들어서기 전부터 곳곳에서 묻어난다.

페리를 타고 섬에 닿으면 교통수단 대부분이 자전거로 채워진다. 배에는 자전거용 승선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외부 차량은 진입이 금지되며, 섬 안에는 셔틀버스가 오간다. 자전거를 타고 순풍에 의지해 느끼게 섬을 둘러보는 게 로트네스트를 즐기는 에코투어의 수순이다.

### 아늑한 독립 해변과 귀염둥이 ‘쿼카’

섬에는 해안선을 따라 20여 개 비치가 들어서 있다. 로트네스트를 에워싼 인도양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블루라군의 변색이 선명하다. 선착장 인근의 톰슨 베이를 시작으로 캐서리 베이, 리틀 새몬 베이 등 독립된 해변과 등대, 전망대 등이 해변을 따라 이어진다.



03 포구 일대는 순백의 요트들이 수를 놓는다.  
04 섬 잔디밭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관광객들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는 단순한 휴양의 섬이 아니다. 섬의 가치는 섬의 동식물들이 철저히 보호되고, 자연 그대로 보존돼 더욱 뜻깊다. 섬의 중심부는 12개의 소금 호수로 이뤄졌다. 소금 호수의 물은 바닷물보다 4배나 더 짜며 특이한 염생 식물들이 자란다. 투명한 바다에는 135종의 열대어와 20종의 산호가 산다.

섬에서만 서식하는 퀴카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난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섬 주변을 무심코 거닐다 보면 귀염둥이 퀴카를 쉽게 마주한다. 다람쥐 얼굴에 아기 캥거루만 한 몸집을 지닌 퀴카는 섬의 마스코트로 사랑받는다. 17세기 섬을 처음 발견했던 네덜란드인들은 쥐 모양의 퀴카를 보고 '쥐들의 보금자리(Rat's nest)'라는 뜻으로 로트네스트라 이름 지었다.

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마음에 드는 해변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면 된다. 리틀 새몬 베이는 스노클링의 명소이고 베이신 비치는 수심이 얇아 가족 단위 방문객에 인기가 높다. 운치 넘치는 바트허스트 등대는 부두에서 걸어서 닿는 거리다. 수영복을

뒷머리에 꼽고 자전거로 섬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서너 시간이면 족하다. 달리다 보면 젖었던 몸은 햇살과 해풍에 금세 건조해진다.

섬 서쪽 끝 '웨스트 앤드'의 블라밍 전망대는 가장 수려한 풍광을 선사한다. 서호주의 질푸른 하늘 아래, 인도양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포구 도시 프리맨틀의 카푸치노 거리

로트네스트섬은 소담스러운 규모다. 길이 11km, 폭 4.5 km로 가로로 길게 뻗어 있다. 최근에는 섬의 둘레길을 트레킹하는 건기 여행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요트 위에 걸터앉아 낚시를 즐기는 망중한은 섬의 익숙한 풍경이다. 난파선의 흔적, 작은 갤러리들도 둘러볼 만하다.

정겨운 에코투어의 섬에는 반전의 과거가 담겨 있다. 로트네스트에는 예전 원주민들을 가뒀던 감옥이 들어서 있었다. 감옥에 억류된 원주민들이 동원돼 지은

건물은 박물관으로 남아 여운을 더한다. 와제몹 등대는 1849년 외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율리버 힐에는 미로로 조성된 군사 터널과 포대가 남아 있다. 원주민 남성들과 소년들의 묘지는 섬 초입에 고즈넉하게 마련돼 있다.

로트네스트섬의 바다 너머는 낭만의 서호주를 대변하는 프리맨틀이다. 프리맨틀에서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어울린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리 이름도 카푸치노 거리다. 배들이 한가롭게 드나드는 포구, 시청사가 들어선 킹스스퀘어 광장에서 10여 분 거닐면 노천카페가 즐지은 카푸치노 거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서호주의 푸른 하늘 아래 이 지역 커피인 '롱블랙'이나 '플랫 화이트'를 훌쩍이는 오후가 곁들여진다.

프리맨틀은 예전 영국 죄수들의 유배지였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프리맨틀 교도소, 라운드 하우스 등 교도소 건물들이 관광명소다. 주말에 열리는 프리맨틀 마켓은 감옥과 마주 보고 서 있다. 뒷골목에서 만나는 아담한 갤러리들은 포구 도시에서의 휴식에 품격을 더한다.

### Tip 로트네스트 아일랜드 가이드

로트네스트섬까지는 퍼스 하버에서 익스프레스 페리로 1시간 30분, 프리맨틀에서는 30분이 소요된다. 퍼스에서 출발하면 스완강과 요트들의 정취를 만끽하며 이동할 수 있다. 퍼스에서 경비행기도 운항한다. 섬에서는 자전거와 스노클링 도구, 보트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자전거가 가장 대중적인 이동 수단이다. 서호주 주민들은 피크닉 삼아 섬까지 당일 투어 여행을 즐긴다. 섬 안에는 외지인들을 위한 방갈로 등의 숙소가 마련돼 있다. 호주는 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편이다. 퀴카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면 벌금을 내야 한다.

- 05 주말에만 문을 여는 프리맨틀 마켓
- 06 노천카페가 즐지어 들어선 카푸치노 거리
- 07 로트네스트로 향하는 관운인 프리맨틀 포구



05

050



06



07

051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산에서 비바람 맞아봤어?

## 광주 무등산

1년 전에도 이들은 무등산에 올랐다. 내년에도 오를 것이고, 늘 그럴 것이다. 눈이나 비가 내릴 수도, 바람이 세찰 수도 있다. 이번에는 비바람이었다. 수만리에서 장불재에 올랐을 때 비바람은 더 거세졌고, 머잖은 곳의 서석대는 비구름에 가려 있었다. 서석대는 어느 맑은 날을 기약하기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산은 늘 그곳에 있으니.



※ IBK산은 등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 무등산에 내리는 겨울비

호남지역의 IBK인들이 무등산에 모였다.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산에 오르는데, 그렇다고 ‘오로지 산’을 고집하진 않는다. 산에서만 친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교류하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볼링 등 취미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수만리탐방지원센터에 모인 인원은 14명. 새벽부터 가늘게 내린 비를 뚫고 모였다.

“비가 오는데 진짜 산에 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비를 뚫고 무등산을 오를 겁니다!”

“피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린 오를 겁니다!”

비옷을 입고 몸을 풀면서 농담들이 종횡무진한다. 이번 산행을 책임지게 된 일곡지점 김문수 과장의 받아

치기와 동료들의 되치기가 웃음 속에 빗소리와 섞인다. 일곡지점에서는 최영인 대리와 정명환 대리, 박민지 대리가 함께했고, 광산지점 박혁 차장과 위중윤 대리, 남원지점 이현호 과장, 호남심사센터 임동민 과장, 수완지점 운영채 대리, 상무지점 김채은 대리, 동광주지점 최효정 대리, 광주WM센터 박은지 대리, 서광주지점 이재우 대리, 하남공단중앙지점 나병현 대리가 함께했다.

비가 내린다는 예보는 있었다. 오전에 시간당 최대 1mm, 우산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수준의 강수량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바람인데, 산악기상예보에는 ‘무등산 북서풍 4m/s’였으니 나뭇잎이 흔들리는 정도, 걱정할 건 아니다. 다만, 산은 기압이 불안정해 날씨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주의를 기울이는 건 기본

이다. 새벽엔 가늘었는데, 수만리에 모일 즈음에는 빗줄기가 조금 굵어져 있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안전, 그 다음이 정상이다.

오늘 오를 코스는 수만리-장불재-서석대 코스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그렇듯 무등산 또한 수많은 등산로를 가지고 있다. 언저리를 돌며 무등산을 감상하는 길까지 따지면 대략 40여 개가 넘는 코스가 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말한다. 정상부에 오르고 싶다면, 크게는 북쪽 원효사에서 오르는 코스와 서쪽 증심사에서 오르는 코스, 남서쪽 수만리에서 오르는 코스가 있다. 증심사 코스는 평탄하되 코스가 긴 편이고, 수만리는 최단 거리로 오르되 조금 가파르다.



02



01

수만리에 모일 즈음  
빗줄기가 굵어졌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안전,  
그 다음이 정상이다.

01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운동

02 오늘의 등산코스를 확인하고 있다.

03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힘찬 파이팅!

04 비가 내림에도 동료와 함께라면 즐거운 등산



03



04



05



06

07

### 광주 뒷산 무등산

지난달 대구 팔공산에 이어 이번엔 광주 무등산이다. 두 산의 공통점이 뭘까? 국립공원이다. 해발 1,000m가 넘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높고 큰 산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뒷산’ 취급을 받는다는 점. 시내 어디서나 보일 정도여서 시내버스를 타고 쉽게 접근해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 또한 소풍 또는 체험학습으로 무등산을 한 번쯤은 올라 보게 된다. ‘뒷산’이라는 표현에는 그만큼 익숙함과 친근함이 배어 있다. 수만리에서 장불재까지는 내내 돌계단의 오르막이 이어진다. 중간에 실 만한 곳이 간혹 나타나지만 위로 끝없이 이어진 돌계단을 보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그럴 땐 답이 없다. 그냥 오르는 거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산행 며칠 전에는 눈이 제법 내렸다는데 며칠 사이 날이 포근했고 새벽부터 내린 비에 길이 매우 질척하고

미끄러웠다. 돌계단으로 이어진 코스이지만 계단 옆과 일부 계단 없이 흙길로 이어진 구간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야 했다. 길도 길이지만 빗방울이 굵어지고 바람이 거세졌다. 위에서 내리는 비는 막기 쉽지만 옆에서 들이치는 빗방울은 난감하다. 장불재에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잠시 모여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했다. 당장의 날씨는 하산을 유혹했고, 어렵게 잡은 산행은 일단 올라 보길 권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장불재까진 올라 보기로 한다. 진행하되, 날씨가 더 안 좋아지거나 안전에 무리가 된다 싶으면 미련 없이 하산하기로. 장불재는 서석대에 오르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시작했건 둘러야 하는 고개다. 곧 무등산의 모든 등산로는 장불재로 통한다 할 수 있다. 30분 정도 더 오르자 돌계

단이 끝나고 평평한 길이 나왔다. 거대한 시설물 옆으로 이어진 길은 광장 같은 장불재에 닿는다. 이곳 대피소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기로 한다. 사실 날씨가 좋았다면, 목적지인 서석대에서 인왕봉을 다녀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등산의 정상은 천왕봉(1,187m)이고 주변의 지왕봉과 인왕봉까지 정상부로 본다 이 ‘천/지/인’ 세 개의 봉우리는 군사시설이 있어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인왕봉이 지난해 가을에 해제되었고, 지왕봉과 천왕봉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비구름 속이다. 올라오는 동안 산행객도 거의 없었고, 장불재에도 대피소에도 우리 말고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등산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라는 거다. 고도가 높아 온도가 낮아지면서 빗방울에도 우박처럼 얼음 느낌이 난다. 능선의

- 05 개구진 포즈로 지친 마음에 웃음을
- 06 진돗개도 함께하는 산행
- 07 가끔은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죠!
- 08 우거진 수풀 사이로 인생샷 한 장



08

바람은 예보보다 훨씬 강력했고, 걸어서 15분 거리의 입석대와 우뚝한 장관을 보여줘야 할 서석대도 비구름에 갇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사이에는 ‘무등산이 보이면 (비가 내려도) 경기를 할 수 있고, 안 보이면 순연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야구도 못할 날씨, 장불재에서 발길을 돌려 하산하기로 한다.

**모두의 무등산, 언제라도 무등산**

무등산(無等山)은 평등이 크게 이루어져 ‘평등’이란 말조차 사라진 상태를 가리킨다. 산에 드는 모든 이를 보듬는 넉넉함 덕일 것이다.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

다면 언제라도 다시 편하게 와도 된다. 언제나 산행을 즐기며 ‘100대 명산’에도 도전하고 있는 임동민 과장에게도, 주말에는 폭 쉬는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박민지 대리에게도 서석대를 보지 못한 아쉬움은 마찬가지일 테다. 그러면 어떨까, 이날 함께한 IBK인들의 다음 만남이 꽃피는 무등산일지도 모를 일이다.

서석대의 주상절리는 무등산의 상징이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질공원이자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계지질공원이다. 서석대의 주상절리는 자그마치 8,5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한다. 그 두터운 시간의 층위가 넉넉함의 비결일지 모른다. 이번에 못 봤다고 조금할 이유가 없단 이야기다. 괜찮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1월이 지나고 2월이다. 포부와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이도 있고, 현실이 의욕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뭐 어쩐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솔직히 새로운 시작에는 1월보다 봄이 어울린다. 당신의 시작과 도전에 건투를 빈다.

09 비바람을 뚫고 장불재에 당도한 IBK인들

10 힘들어도 빠질 수 없는 셀카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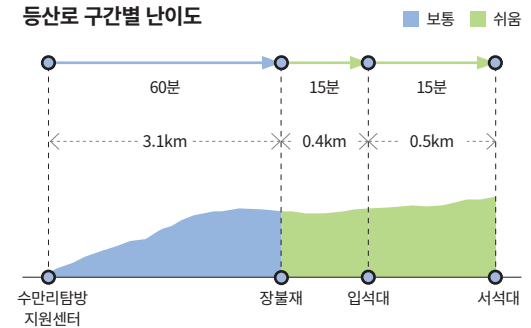
11 물안개 사이로 보이는 입석대

12 정상만큼 의미있는 장불재에서 한 컷!



**무등산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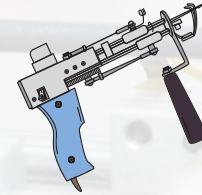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산천왕봉길 792
- 입산 시간** 하절기 04:00~17:00  
동절기 04:00~16:00
- 코스** 수만리탐방지원센터-장불재-서석대(2.6km)  
(※ 기상 악화로 장불재에서 회귀)
- 문의**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062-227-1187





터프팅,

그 감각적인  
손맛의 세계



마치 총 모양처럼 생긴 터프팅 건으로 실을 쏘아 직물을 짜는 ‘터프팅’이 젊은 세대에서 취미로 대세다. 보통 공예는 차분하고 정적인 게 대부분인데, 터프팅은 다른 공예에 비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라 작업하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평소 터프팅에 관심이 많았다는 다섯 명의 IBK직원들이 터프팅 아트에 도전했다.

# Tufting

### 터프팅에 도전하는 IBK인들

터프팅은 원단에 터프팅 건으로 다양한 색감의 실을 짜서 심듯이 직조하는 섬유 공예를 말한다. 머리카락, 잔디 등이 촘촘하게 난 ‘다발’을 뜻하는 단어 ‘Tuft’가 어원이다. 땅에 잔디를 심듯, 천에 실을 심는 방식이기 에 러그와 카펫 등을 만들 때 즐겨 활용된다. 처음에는 완성된 작품의 예쁜 색감과 복슬복슬한 감촉에, 그다음엔 작업하는 ‘손맛’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터프팅 아트의 매력은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다양한 컬러와 소재의 실로 원하는 그림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특별한 손재주 없이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처럼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호계중앙지점 고급주 대리, 수지동천역지점 마헤리 대리, 남대문지점 박지연 대리, 반월공단지점 이주연 대리, 마장동지점 장애인 대리가 터프팅 아트에 도전했다. 서로를 웃게 만든다는 이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속 깊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예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터프팅 클래스도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어 신청했다고. 다섯 사람은 평소 터프팅에 관심이 많았다. 고급주 대리가 “터프팅 해보자.”라고 얘기를 꺼냈을 때 모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번에 “오케이”를 했다. 다섯 사람이 미리 자리에 앉았다. 프레임에는 이들이 만들고 싶은 도안이 담긴 천이 끼워져 있었다. 고급주·박지연·장애민 대리는 거울을, 마헤리·이주연 대리는 귀여운 발 매트를 만들기로 했다. 각자 취향에 맞는 색실을 고르고 나니 강사가 터프팅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터프팅 기법을 이용하면 컵 받침부터 거울, 방석, 전등갓, 러그, 카펫 등 크고 작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작업자가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거나 직접 구상해 스케치할 수 있다는 점, 취향에 맞는 색의 실을 고를



**터프팅 아트의 매력은 실로 원하는 그림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쓰면서 면을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작업은 터프팅 건의 무게를 이기면서 놓치지 않도록 드는 것이 중요하고,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게 조심도 해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터프팅 수업의 반 이상은 기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터프팅 건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작업 틈틈이 어깨, 팔, 손목을 스트레칭해 주세요.”

연습 끝에 모두 기계가 어느 정도 손에 익은 듯 보였다. 드디어 도안이 그려진 배경 천을 따라 실을 쏘 차례! 이주연 대리가 “떨린다”라며 속마음을 전하자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는 잘할 수 있어!”라며 기운을 북돋웠다. 동기들의 응원에 힘을 받은 듯 이주연 대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어 있던 천에 털실로 조금씩 색이



수 있다는 점,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터프팅의 매력이에요. 특히 실을 쏘는 과정에서 잡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 탕탕탕! 터프팅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터프팅은 일단 터프팅 건과 익숙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섯 사람은 강사에게서 터프팅 건에 실을 꽂는 법과 쏘는 법 등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그리고 천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터프팅 건을 쏘보면서 감각을 익혀나가기 시작했다. 양손에 묵직한 떨림이 전해졌다. 곧 ‘탕.탕.탕.탕’ 소리가 나면서 천에 실이 박히기 시작했다. 다섯 사람의 눈은 동시에 신기하다는 듯 동그아졌다.

연습은 계속 이어졌다. 직선, 곡선, 원형을 만들어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터프팅 건을 쏘면서 원리를 익혔다. 차례로 뒤에서 앞으로 총을







는 별풍별도, 체크무늬 패턴도 생생한 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마혜리 대리는 직접 만든 작품이 자신만의 공간에 놓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렌다.

“최근 이사를 했어요. 화이트와 우드 톤으로 집을 꾸며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작품도 화이트와 우드 톤으로 해봤어요. 집 인테리어와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드디어 터프팅 건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는 도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해 잔털을 잘라서 걷어내는 셰어링(Shearing) 작업을 진행할 차례! 또다시 집중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후에는 실이 천에 고정되도록 본드를 발라주고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 시켜 주었다. 그리고 뒷면에 마감용 천을 덧대어 깔끔하게 만들어주었다. 테두리에 튀어나온 실들은 가위로 다듬어서 마무리해주면 작업 끝! 박지연 대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무척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요.”라며 미소 지었다. 나머지 네 사람도 공감한다는 눈길을 건넸다.

네 시간 정도 진행된 터프팅 건 클래스가 드디어 종료되었다. 다섯 사람의 정성 어린 손끝에서 세 개의 예쁜 거울과 두 개의 매트가 탄생했다. 이들은 “정말 마음에 든다.”, “인테리어용으로 제격이다.”라는 감상평을 전하며 서로 마주 보고 환하게 웃었다. 터프팅 작품처럼 이들의 미소도 포근하고 따뜻했다.

입혀지기 시작했다. 수를 놓은 쪽의 반대편으로는 보드라운 실들이 올라왔다. 터프팅은 터프팅 건을 쓴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실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 하얀 천에 형형색색 실이 촘촘히 박히기 시작했다. 다섯 사람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서로 확인하면서 ‘멋지다!’, ‘예쁘다!’라며 칭찬을 주고받았다. 작업에 몰입하던 장애인 대리는 “집중해서 실을 쏘다 보니 잡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에요.”라며 엄지를 세웠다. 곳곳에서 ‘탕탕탕!’ 소리가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 터프팅으로 완성한 나만의 멋진 작품

터프팅은 다른 공예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섯 사람의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다. 작업이 익숙해짐에 따라 표정에도 점차 여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새 포근한 느낌의 그림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려한 꽃도, 귀여운 곰도, 떨어지



##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우연히 유튜브에서 터프팅 하는 작업을 보면서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작업이 어려웠어요. 곡선이 많다 보니 좀 더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의도했던 빈티지한 거울이 만들어져 기분이 좋습니다!



호계중앙지점 고금주 대리

요즘 체크 스타일에 매력을 느껴서 블랙 & 화이트 체크 패턴 거울을 만들어봤어요. 일단 제가 손으로 한담, 한담 만든 작품이라 애정이 팍팍 갑니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작업하면서 팔이 좀 아파서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무척 크네요! 제 방에 인테리어용 거울로 장식해둘 생각입니다.



마장동지점 장애인 대리

작업하는 내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터프팅 건으로 빈칸을 빠곡하게 채워가는 작업에서 묘한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집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인테리어용 거울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벽에 걸어두면 집이 화사해질 것 같아요. 동료들과 공업을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좋고요!



남대문지점 박지연 대리

SNS로 터프팅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작업하면서 터프팅 건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 성취감과 보람이 크네요! 작품은 제 방에 걸어둘 생각입니다. 볼 때마다 동기들과 함께한 오늘의 즐거운 추억이 떠오를 듯합니다.



반월공단지점 이주연 대리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회사 생활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활력을 얻은 기분입니다. 공방에 오기 전부터 힐링을 기대하고 왔는데,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 진짜 힐링을 한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작업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작품을 보니 뿌듯하고요. 무엇보다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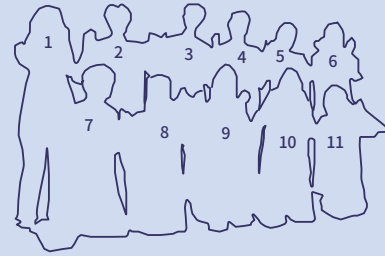


수지동천역지점 마혜리 대리

# 암벽을 오를 때가 제일 행복해!

## 클라이밍동호회 몽키즈

- 1. 인사부 조가현 대리
- 2. IT금융개발부 강동현 대리
- 3. 창업벤처지원부 백승민 대리
- 4. 화성발전기업성장지원팀 윤치빈 대리
- 5. 자산관리전략부 서은영 대리
- 6. 외환사업부 박혜선 대리
- 7. 도곡팰리스지점 최준현 대리
- 8. 자산관리전략부 이예린 대리
- 9. 중부지역본부 이유진 대리
- 10. 공릉역지점 봉에스더 대리
- 11. 영업부 김민정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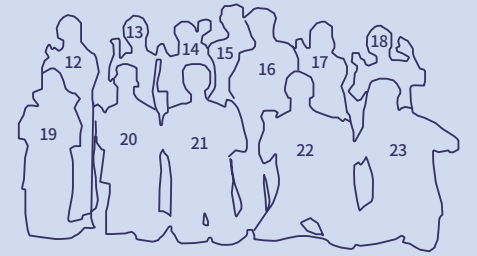


알록달록한 홀드가 오밀조밀 붙어 있는 실내 암벽장, 그곳에 IBK 청년들이 모였다. 바로 IBK 유일의 클라이밍동호회 IBK몽키즈!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홀드처럼 각자의 개성도 서로 다른 이들이지만 클라이밍에 진심인 것만큼은 똑같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12.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연주 대리
- 13. 선부동지점 김정인 대리
- 14. 독산동지점 조경진 대리
- 15. IT금융개발부 백중수 과장
- 16. IT금융개발부 유인기 대리
- 17. 수유사거리지점 김현정 대리
- 18. 외환사업부 이가은 대리
- 19. IT금융개발부 정다경 대리
- 20. 강남기업금융센터 유영학 대리
- 21. 데이터센터 박영훈 대리
- 22. 테헤란로지점 김령우 대리
- 23. 이태원지점 박민규 대리





**Q.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2023년 신설되어 올해로 1주년을 맞이한 행내 유일한 클라이밍동호회 IBK몽키즈입니다. 몽키즈는 클라이밍을 하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 같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감에서 오는 유쾌하고 귀여운 느낌과 더불어 클라이밍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24년 1월 기준 정회원 32명으로, 현재 본점 근처인 종로, 을지로 일대와 강남, 강서 등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동호회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요?**

**A.**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소규모로 모여 클라이밍을 하던 중, 클라이밍을 통해 새로운 직원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회사생활을 한층 더 건강하고 즐겁게 해보자는 취지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동호회의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동호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모임에 3번 이상 참가하면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대관 및 교류전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원분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다만, 클라이밍은 낙상 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신경은 필요합니다.

**Q. 직장인이라 함께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A.** 매주 1회를 기본으로 모이고 있으며, 투표를 통해 수시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직원과 영업점 근무 직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울 권역 내 다양한 클라이밍장을 돌아가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맞는 경우 주말에도 모여 운동을 합니다.

**Q.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2023년 9월 2일에 진행한 5개사 협력교류전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동호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IBK몽키즈가 가장 활기차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랑했으며, 생긴 지 1년도 안 된 신생 동호회임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뒤처지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에 깊게 남았습니다.

**Q. 동호회 회원들이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A.** 2023년 1월 동호회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100회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3일~4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호회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회사생활을 한층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Q.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A.** 클라이밍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인만큼, 이를 통해 자신감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업무 수행 능력도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생겼다는 점과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회사생활을 한층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클라이밍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클라이밍이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요즘은 클라이밍 열풍으로 근무지 근처나 자택 근처에 실내 클라이밍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클라이밍장에서 진행되는 일일강습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Q. 2024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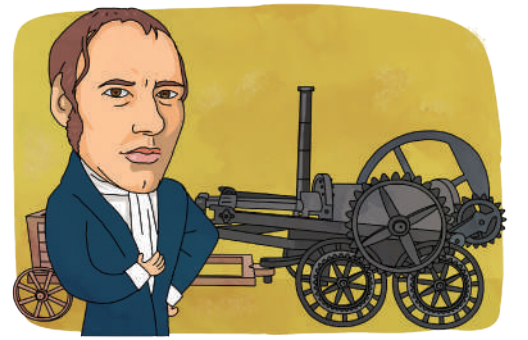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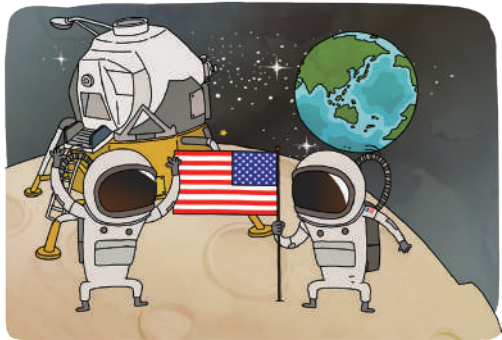
**A.** 2024년 상, 하반기 IBK몽키즈의 정기대관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5개사 협력교류전 활동에 이어 올해 3월에는 무려 12개 기업의 클라이밍동호회 연합 교류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 인원은 약 120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꾸준한 트레이닝을 거쳐 하반기에는 자연암벽에 도전할 예정이며, 안전장비를 갖추어 5층 높이까지 등반하는 리드 종목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동호회원을 구성하여 암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IBK몽키즈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추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회사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만큼 안전한 등반을 가장 중시합니다. 모든 회원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하는 것이 IBK몽키즈 임원진들의 바람만큼 몽키즈는 앞으로도 안클! 즐클! 행클! (안전한 클라이밍! 즐거운 클라이밍! 행복한 클라이밍!)



# February in History

## 2월에 일어난 이야기



### 05day

####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폴로 14호 달 표면 착륙

아폴로 14호는 미국 NASA의 아폴로 계획에 의해 발사된 유인우주선이다. 유인우주선 중 8번째이며, 유인 달 착륙으로는 3번째다. 아폴로 14호는 달의 표면인 프라 마우 충돌구 지역에 착륙하여 9시간 22분 동안 42.28kg의 월석을 채집하고 돌아왔다. 이날 월석을 나르는 데 최초로 손수레를 사용했으며, 당시 기준 가장 달 표면 체류 시간(약 33시간)을 달성했다.

### 08day

####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기공식 개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는 1958년, 연예계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리로 맨 처음 입성한 인물은 총 7명이다. 거리의 길이는 할리우드 대로부터 바인 스트리트까지 이어진다. 해당 거리에는 영화 등 업계에서 활약한 인물의 이름이 새겨진 2,500개 이상의 별 모양 플레이트가 묻어져 있고, 매년 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18day

####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 명왕성 발견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퍼시벌 로웰의 예측을 참고로 로웰 천문대에서 관측을 진행한 결과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에 NASA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6년 클라이드 톰보의 유해를 뉴허라이즌스에 태워 명왕성으로 보냈다. 하지만 2006년까지 태양계 9번째 행성으로 인정됐던 명왕성은 유사한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결국 태양계에서 퇴출됐다.

### 21day

#### 첫 증기 기관차 운행

리처드 트레비시가 발명한 증기 기관차가 웨일스에서 첫선을 보였다. 당시 증기 기관차는 실린더 모양의 보일러 및 석탄가스가 배출되는 연통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관차는 70여 명의 사람과 석탄 차를 포함, 총 25톤의 무게를 싣고 시속 8km로 달렸지만, 주철로 만들어진 철로가 증기 기관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 이날 영국에선?

1936년 영국의 유명 희극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감독 및 주연으로 활약한 무성 영화 <모던 타임스>가 개봉됐다.

#### 이날 일본에선?

1919년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 600명이 2.8 독립 선언을 진행했다.

#### 이날 대한민국에서는?

1910년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인 경성고등연예관이 을지로 2가에 개관됐다.

#### 이날 미국에선?

1982년 마이클 잭슨의 앨범 <Thriller>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 부문을 포함 총 8개 부문을 수상했다.

## Big Issue

2월, 세계 각국에선  
또 어떤 일이?  
한 줄로 보는  
그날의 이슈

- 1일 1884년 옥스퍼드 영어사전 첫 번째 권 간행
- 4일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 7일 1812년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 탄생
- 8일 1971년 나스닥 시장 거래 시작
- 9일 1849년 로마 공화국 건국
- 16일 2005년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발효
- 17일 2006년 필리핀 남부 레이테주에서 산사태 발생
- 19일 1878년 토머스 에디슨 축음기 특허 취득
- 27일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발생

# 건조한 날씨,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알람 소리에 눈을 뜬 후, 여러분의 첫 루틴을 떠올려보자.  
아마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밤에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날씨를 체크하는 것 아닐까.  
설 틈 없이 일하는 눈에 잠깐의 휴식을 선사해보자.

## 나도 안구건조증일까?

- 밤이면 눈부심 현상을 자주 느낀다.
- 모래나 먼지가 눈에 들어간 느낌이다.
-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따갑고 힘들다.
- 스마트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눈곱이 생긴다.
- 냉난방기가 틀어진 곳에 가면 눈물이 흐른다.
- 형광등 아래에서 눈부심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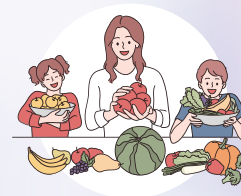
위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안구건조증이 의심됨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구 건조가 만성피로로?!

스마트폰, 노트북, 패드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출시됨에 따라 컴퓨터 눈병이라 불리는 'VDT 증후군'을 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VDT 증후군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스마트기기를 장시간 사용해 생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중 대표적인 증상인 안구건조증은 잦은 스마트기기 사용, 콘택트렌즈 착용, 미세먼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건조한 겨울철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발병 원인이 다양한 안구건조증은 단순 눈의 피로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두통, 탈모,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가짜 근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습관 변화로 건강 챙기자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업무상 불가할 경우, 모니터 위치를 눈높이보다 낮게 설치하고 모니터와 눈의 거리를 50~80cm 간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식습관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당근과 시금치, 브로콜리 등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해 안구 건조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만약 생활환경과 식습관으로도 안구건조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체력 증진 외 눈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워 습관들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고 먼 풍경을 바라보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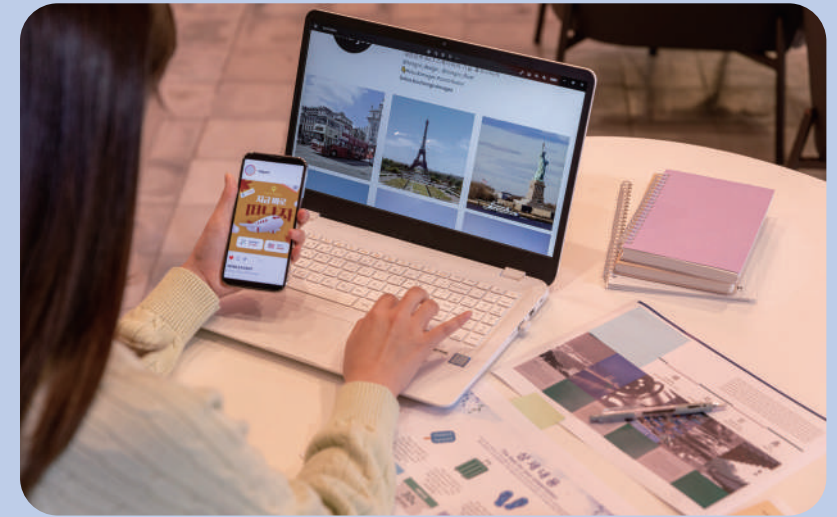
### 참고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우리 가족 연령별 눈 건강 관리법, 하이닥, 2015. 01. 27  
눈 건강, '혈액순환'부터 챙겨라, 하이닥, 2018. 06. 12

## 회사를 ‘나답게’ 다니자 ‘편임플로이먼트+프리터족’



취업이 필수였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가꾸는 편임플로이먼트와 일자리에 메여있지 않은 프리터족이 유행이다.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실직과 아르바이트가 긍정적 기회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 실적이 기대되는 순간 ‘임플로이먼트’

헤아릴 수 없는 직장인의 수만큼 직장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천차만별이다. 누군가에게는 자기 계발의 공간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단순히 돈 버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취업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옛 세대와 달리 요즘 MZ세대 직장인 4명 중 3명은 ‘조용한 퇴사’를 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퇴사’는 회사를 관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초과근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이직할 회사를 찾아보는 것까지 퇴사 범위에 포함된다. 과거, 잘릴까 봐 두려워 회사에 열과 성을 쏟던 세대들과 달리 퇴사를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으며, 미래를 위한 터닝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다.

**IMF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2030세대는 실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지만, 회사를 인생의 필수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와 본인의 삶을 분리해 바라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선들이 편임플로이먼트를 탄생시켰다.** 재미(Fun)와 실직(Unemployment)을 합친 단어인 편임플로이먼트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회현상뿐 아니라 SNS 유행과도 관련 깊음을 알 수 있다. SNS 속 업로드되는 자기 모습을 더 멋있고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카메라 뒤의 모습은 숨긴 채 여행과 맛집 투어 등으로 행복을 과시하는 것이다. SNS에 업로드되는 것은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팍팍한 현실과 살짝 떨어져 위안을 구하고, 하트와 댓글을 보며 버틸 힘을 얻는다.



###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논다 '자발적 프리터'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입플로이먼트와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자발적 프리터다. 기존 사회용어로 사용되던 프리터에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있었으나, 최근 단어 앞에 '자발적'이 붙으며 긍정적 의미로 변모했다. 자발적 프리터는 자유(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트(Arbeiter)가 합쳐진 말로 과거, 취업 대신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던 이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000명 중 26%가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졸업 및 중퇴, 수료 등의 이유로 학업이 종료된 청년층이 약 46.9%에 달했는데 그중 74.5%가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장 조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직장생활에도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에 얽매이는 정규직보다 임금은 적더라도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고 언제든지 마음 편히 다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늘어난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입구가 좁아진 대기업 신입 공채와 직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고수의 아르바이트의 탄생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루 3~4시간 근무 후, 남은 시간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을 알차게 꾸려나간다.



### 나를 나답게 하는 마음가짐

편입플로이먼트와 자발적 프리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쇼츠 등 온라인에서도 인기다.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 중 틱톡을 예로 들면 대퇴사를 뜻하는 #Greatresignation가 2억 7,500만 회, 조용한 사직을 뜻하는 #quietquitting가 8억 2,000만 회 언급됐다. 틱톡 속 영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직자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꾸며진다. 이는 실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업자에게는 공감을, 재직자에게는 대리만족을 전달하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인터넷을 하며 자라온 MZ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민족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한 우물만 파기보단 다양한 도전에 뛰어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퇴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편입플로이먼트와 자발적 프리터족은 퇴사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퇴사를 중용하는 단어처럼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일뿐, 퇴사가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건은 아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전전긍긍하며 회사 업무에 속앓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은 쫓긴다고 생각할수록 조급해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편입플로이먼트와 자발적 프리터와 같은 단어를 방패 삼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 고객의 성장을 책임지는 IBK어벤져스

## 개인여신부

‘따르릉’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하루가 시작되는 곳.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지만 개인여신부는 지점과 고객이 본인의 자리에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잡을 펼치고 있다. 지점과 고객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여신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되고 있는 개인여신부의 눈빛에는 오늘도 곧고 반듯한 강단이 서려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다

‘대출’의 사전적 의미는 ‘고객 또는 기업 등에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는 행위’다. ‘여신’도 이와 비슷한 의미나, 여신의 범위는 대출보다 광범위하다. 여신은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공여 투자, 외국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여신 업무 등도 포함하고 있어 더 넓은 의미의 대출을 포괄한다.

현재 개인여신부는 개인 고객을 위한 대출 지원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햇살론 대출 등과 같은 정책상품과 주택담보대출, 전세 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관리 및 운영한다. 이 외에도 상품 출시

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지점 직원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고객에게는 탄탄한 가계의 시발점이 되어 주고 있다.

개인여신부는 총 4개 팀, 29명의 부서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유동화 대출을 담당하는 상품기획팀과 집단대출 및 대출의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영업관리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서민금융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청약상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팀으로, 직원 모두가 보다 나은 대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심하고 있다.

### 상품기획팀



**직원 모두가  
보다 나은 대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심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팀

# Leading





영업관리팀

서민금융지원 공로로  
금감원 포용금융 수상

# Embrace

한국경제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맞닥뜨림은 물론, 은행 간 경쟁 심화로 어려운 대외환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여신부는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며 M/S(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023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포용금융 유공기관 포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개인여신부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대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출 비교 플랫폼 제휴 서비스를 확대해 비대면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고객 기반 확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연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에도 더욱 힘 쏟을 예정이다.

대출 관련 규정은 경제 상황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각각으로 변한다. 때문에 개인여신부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600여 개 영업점 직원들의 문의 사항에 더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 신상품 기획 및 관리,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편, 규정을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개인여신부의 업무 분위기는 딱딱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도 부서원들의 표정에 미소가 가득한 건 부서원 모두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살피며,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이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 때문일까? 개인여신부는 어느 하나 놓치는 일 없이 부서원 모두가 일당백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 직원과 고객의 고민을 덜어주는 개인여신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개인여신부는 떠오르는 태양과 승천하는 용의 모습처럼 ‘대출 업무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 나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매주 실시하는 ‘가계대출 교육의 날’ 교육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 가계대출 제도 변경 방향을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고객의 편리는 고유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인여신부는 고객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지점과 고객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개인여신부는 향후 업무 비대면화를 추진해 영업점 업무량 경감 및 당행 가계 대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개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한 개인기업 균형성장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업무에 대한 열정에 고객을 생각하는 개인여신부의 마음이 덧입혀 더 탄탄해질 IBK기업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기대해본다.

### 서민금융팀

# Cooperator



개인여신부는 ‘대출 업무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 나가는 중이다.



### Mini Interview



####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개인여신부

가계 대출은 정부정책 및 내·외부 상황에 따라 규정 개정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점 직원들이 많습니다. 영업점 직원분들이 가계 대출을 쉽게 상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제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업무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고객에게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여신부 29명의 부서원이 600여 개 영업점의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신제도 개발, 각종 규정 개정, 자금 정산 등 본연의 업무도 수행하다 보니 시간 및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항상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힘든 업무지만 항상 생동감 넘치는 밝은 분위기와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영업점과 고객에게 웃음을 주는 개인여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 옆 동료의

□ □ □ □ □ 을(를)

배우고 싶다!

이명환 부장



(김보연)부드러운미소

김종우 차장



(조성연)상냥한유머

이정훈 과장



(최기연)뛰어난센스

최윤지 대리



(조성연)매사적극적

조성연 대리



(최기연)꼬꼬친절함



김민진 팀장



(김정하)강한공정력

장광현 차장



(최성호)과묵과성실

김현 차장



(이선주)근면성실함

이선중 과장



(김현)스마돈한능력

상품  
기획팀

윤성호 과장



(장광현)친절한미소

박하연 대리(과장)



(권소정)넓은바탕

김혜인 대리



(정재민)개여부품정

정재민 대리



(김혜인)발고공정적

김정욱 대리



(박지수)또든게최고

서민  
금융팀

김지은 대리



(김효주)신속과정확

윤지수 대리



(이나니)상냥한리더

조영진 팀장



주택  
도시  
기금팀

반상영 차장



(김보연)세심한행버려

(이선애)일당백여신

박지수 대리



(김효주)뜰뜰그자세

권소정 대리



(박하연)친절과정확

영업  
관리팀

김정하 팀장



(김보진)형보리더십

최기연 차장



(이정호)묵묵한위드

이신애 대리



(반상영)공정마인드

심윤희 대리



(양정)유쾌한성격

양정 계장



(심연희)성실한태도

# 개인여신부 최고





## 당신의 삶에 건강 한 스펀 '그릭데이'

(주)스위트바이오 오종민 대표  
신당역지점 거래 기업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그릭요거트가 주목받고 있다. 아침 식사로도 손색없고, 디저트로도 좋은 그릭요거트 '그릭데이'를 만드는 (주)스위트바이오 오종민 대표를 만났다. 국내에서 팬덤까지 보유한 (주)스위트바이오가 올해부터는 그릭요거트의 불모지로 불리는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스위트바이오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니 머지않아 전 세계에서 '그릭데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 2023. 03. ○ 그릭데이 압구정점(그릭데이고), 지중해 컨셉 그로서리 마켓으로 리뉴얼
- 2023. 01. ○ 그릭요거트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 유지
- 2022. 12. ○ 시리즈 B 투자 유치(누적 투자액 135억)
- 2022. 01. ○ 이대본점, 제1호 시그니처 매장으로 리뉴얼
- 2021. 11. ○ 브릿지 투자 유치(누적 투자액 31억)
- 2020. 12. ○ 시리즈 A 투자 유치
- 2020. 09. ○ 법인 전환
- 2018. 08. ○ 그릭데이 2호점(홍대점) 개점
- 2018. 07. ○ 온라인 판매 시작
- 2018. 07. ○ 제조 공장 설립, 그릭요거트 업계 최초 자동화 실시
- 2016. 03. ○ 그릭데이 이대본점 설립(3평 테이크아웃 매장)



### 건강에 대한 고민, 그릭요거트에서 답을 찾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주)스위트바이오는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목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식품 제조·유통 전문 스타트업이다. 그릭요거트 브랜드 ‘그릭데이’로 국내 발효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 전에는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사업에 관한 스토리를 학습하면서 재미와 활력을 느끼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실 대학 시절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오종민 대표는 과감히 회사를 떠나 스타트업을 차리면서 간편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릭요거트에 주목했다. “우연히 그릭요거트를 알게 됐는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2005년 무렵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요거트 브랜드 ‘초바니’의 사례를 찾아보며 건강한 요거트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만의 그릭요거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으로서 ‘그릭요거트’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이 필요했던 오종민 대표는 여의도에 가판대를 놓고 직접 만든 그릭요거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솔직한 반응을 토대로 제품을 개선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종민 대표는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3평 남짓의 작은 가게를 열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1년 후 1호점은 17평 매장으로 확장, 2018년 홍대점, 2019년 성신여대점을 오픈하면서 (주)스위트바이오는 빠르게 성장했다.

### ‘진실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고집



국내 2030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한 (주)스위트바이오는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으며 빠르게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주)스위트바이오만의 ‘제품력’ 덕분이다. 그리스 전통 공법을 따르되, 그릭데이가 자체 배합한 유산균을 첨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품을 개량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

그릭데이의 주요 제품은 신선한 국내산 원유에 자체 개발한 복합 유산균만을 넣어 발효시킨 ‘시그니처’와 오랜 시간에 걸쳐 단백질을 남기고 유당과 수분을 천천히 빼내는 ‘그리스 전통 스트레인 공법’을 통해 오리지널 그릭요거트 맛을 즐길 수 있는 ‘라이트’가 있다. 유청을 70% 제거해 부드러운 뿐만 아니라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은 라이트는 우유의 고소한 맛과 풍미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청을 85% 제거해 라이트보다 꾸덕꾸덕한 질감의 시그니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주)스위트바이오는 ‘그릭드링크’, ‘수제 그레놀라(7종)’, ‘그릭모나카’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스위트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함’과 ‘진정성’입니다. 스위트바이오는 건강한 제품만을 고집합니다. 제품이 고객의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건강하면서 맛있어서 계속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행을 좇기보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습관처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점이 다른 브랜드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스위트바이오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BYOB DAY’를 진행하는데, 이는 그릭데이 매장에 개인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전 메뉴를 500원 할인해주는 캠페인이다. 또 개인 용기 지참 시 200원 할인은 상시 진행

한다. 이외에도 그릭데이의 용기가 한 번 쓰고 버려지지 않도록 리사이클링 화분 만들기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스위트바이오는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꾸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주)스위트바이오의 특징점

#### Step. 1

#### 원유와 유산균만으로 만든 건강한 제품

그리스 전통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한 맛의 극대화를 통한 대중적인 그릭요거트의 제품력

#### Step. 2

#### 국내 발효유 시장에서 그릭요거트의 저변 확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한 끼 식사로 그릭요거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릭요거트 대중화에 노력

#### Step. 3

#### 그릭요거트 유통의 선순환 구조

그릭요거트의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는 유일한 브랜드로 경쟁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글로벌 기업의 포부를 안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행보가 시작되다**



오종민 대표는 ‘그릭데이’는 찐팬과 함께 성장한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마케팅보다는 제품에 집중하면서 입소문만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보내오는 그릭요거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주)스위트바이오가 고객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이유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저희에게 보내주는 좋은 반응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돌고 돌아 그릭데이’, ‘쟁여템’은 고객들의 리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릭데이는 매장 위치를 정할 때도, 인스타그램에 ‘그릭데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점이 생겼죠.”

국내 발효유 시장 규모는 2026년 2조 2,498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스위트바이오는 그릭데이가 가진 브랜드의 진정성을 가지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그릭데이 팬덤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 공정의 완전 자동화를 통해 전 세

계적으로도 전통 그릭요거트를 확산하고자 한다. 그 첫 시작이 일본진출이다. 이미 일본 법인을 설립했고, 도쿄 내에 1호점을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16년 그릭데이가 국내에 처음 정통 그릭요거트 시장을 열어 지금까지 성장해왔듯이, 앞으로 해외에서도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있고, 시장 확장성도 있기에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릭데이의 궁극적 목표는 100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릭요거트’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주)스위트바이오의 행보는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의 품질’에 가치관을 두고 ‘건강한 맛’에 대한 신념을 꺾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온 오종민 대표와 세계 속으로 더 멀리 나아가 (주)스위트바이오의 내일이 기대된다.



**기업을 생각하는 IBK기업은행의 진정성  
‘우리 편’이 있다는 생각에 큰 힘을 얻습니다.**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A. (주)스위트바이오는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가가 높더라도 최대한 원물을 살린 형태 또는 가공이 최소화된 형태로 제품을 만들 것(재료)’, ‘다른 제품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할 것(영양)’, ‘맛있어서 고객이 지속해서 찾을 것(맛)’ 이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스위트바이오 직원 모두는 건강한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과 질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A. (주)스위트바이오는 2018년 경기도 김포에서 소규모 임차 공장으로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좀 더 큰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임차하던 공장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돼 토지를 분양받고 공장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거래처를 통해 IBK기업은행을 소개받았습니다. 덕분에 토지구매부터 건축설비까지 꼼꼼한 자문을 받으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알려주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IBK기업은행은 (주)스위트바이오를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주)스위트바이오는 IBK기업은행의 지원과 응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창출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과의 소중한 고마운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표 오종민 (주)스위트바이오



**건강한 맛에 대한 진정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섭렵할 (주)스위트바이오를 힘껏 응원합니다!**

**Q. 신당역지점을 소개해주세요.**

A. 1961년 IBK기업은행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신당역지점은 서울중앙시장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활학시장, 백학시장이 삼면으로 둘러 쌓여있죠. 그래서 고객층이 많은 편이고,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가는 고객도 매우 많습니다. 신당역지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현재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다양한 세대로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통이 잘 돼 즐겁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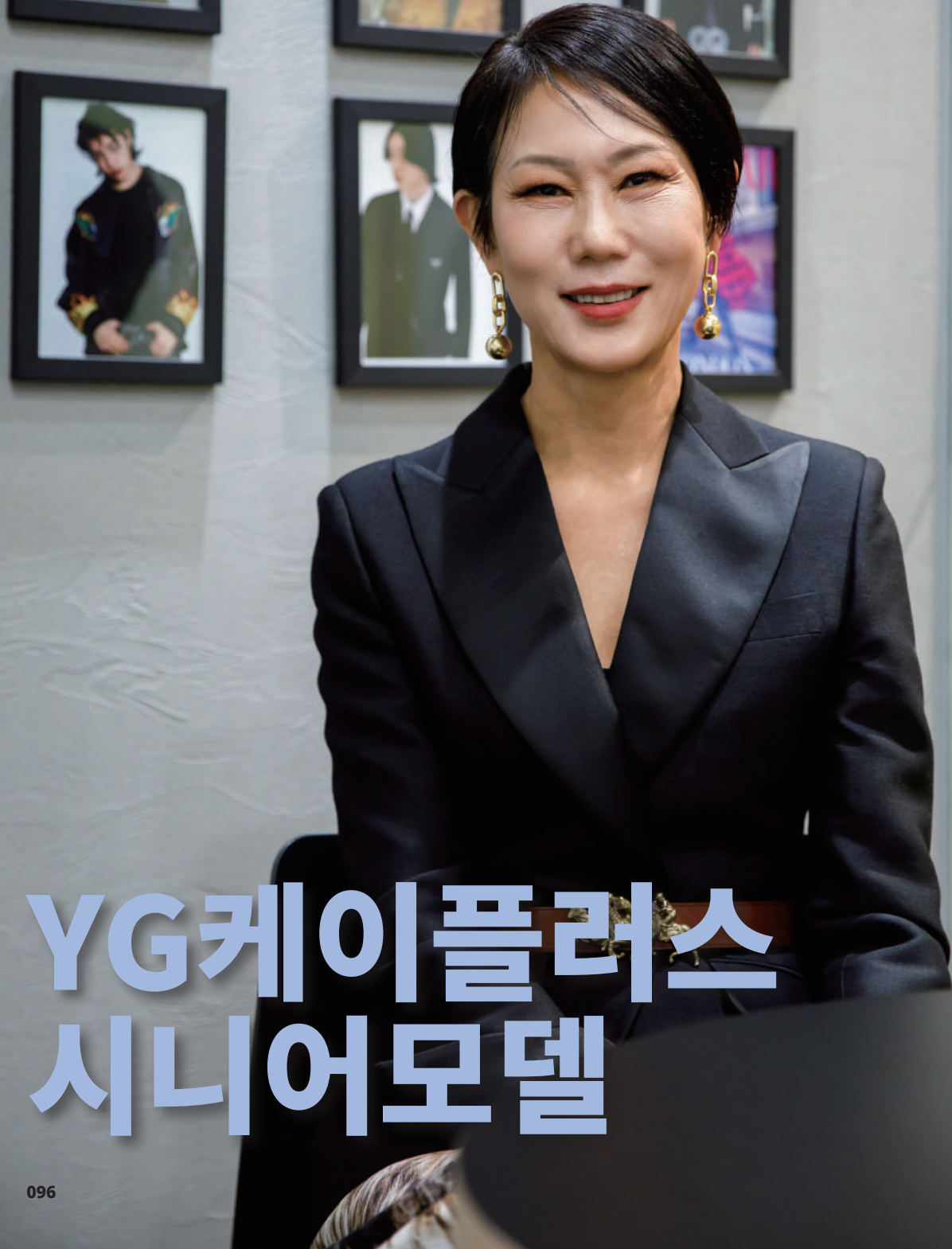
**Q. (주)스위트바이오의 비전과 강점은 무엇일까요?**

A.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그릭데이’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요?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 눈부신 성장을 이어온 (주)스위트바이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종민 대표의 저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스위트바이오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에 깊이 공감하는 직원들의 열정이 (주)스위트바이오의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 보다는 내일 더 큰 약진을 이어가는 (주)스위트바이오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신당역지점 이혜숙 지점장





# YG케이플러스 시니어모델

## 10%의 기적으로



## 런웨이에 오르다

YG케이플러스 박지영 모델  
IBK언주로지점 고객

꿈을 펼치기엔 결코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꿈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대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 있는 선택만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IBK언주로지점 고객 박지영 모델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금 새해 마인드를 새롭게 세워본다.



### 생존율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난소암을 선고받은 박지영 모델.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발견한 암세포는 이미 복막과 림프샘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주치의는 가족들에게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의 시간이 남았다며 시한부 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박지영 모델.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은 10시간이 넘는 수술과 9번의 항암치료 속에서도 웃음을 보여주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년, 고된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뜰히 버텨낸 그의 몸은 놀랍게도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난소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마음이 어렵기보다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 수술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그 후

로 성실하게 치료도 받고, 꾸준히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몸 회복에 신경을 많이 썼죠. 암세포가 많이 전이 돼 생존율이 10%밖에 안 됐었는데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같이 완치한 사례가 흔치 않아서 의대생들 연구자료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게 기적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건강한 채소가 메인인 식단과 복싱, 헬스 등 꾸준한 운동으로 난소암을 이겨내고 완치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고, 이겨낸 경험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는 모델로서 인생 제2의 막을 열어주는 기회가 됐다.

### 30년 주부에서 7년 차 시니어 모델로

“젊었을 때 패션이나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를 꾸미고 나가면 주변에서 모델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죠. 내심 속으로는 모델을 꿈꾸긴 했지만, 당시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 부모님 반대가 심해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렇게 모델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30년 동안 주부로 지냈어요. 그런데 난소암 3기라는 인생에서 큰 위기를 이겨내고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얻었더라고요. 제2의 인생에서는 다음은 없고, 지금 용기 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모델 워킹 클래스가 열린 게 아니겠어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그렇게 모델 워킹 클래스 수강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모델 워킹 클래스는 어릴 적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꿈꾸게 했고, 숨겨져 있던 그의 재능이 발휘되기에 충분했다. 클래스 수강 중 동덕여

대 졸업 패션쇼에서 사이즈 미스로 핑크 난 모델 자리에 담당 강사가 박지영 모델을 추천하면서 시니어 모델로서 첫 데뷔를 하게 됐고, 그 후로 국내외 많은 디자이너 눈에 든 박지영 모델은 다양한 패션쇼 런웨이에 올라 모델로서 입지를 다지며, 현재는 YG케이플러스 소속으로 모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2023년 2월에는 ‘제4회 KMA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해 우수상과 베스트워킹상을 수상하고, 7월에는 ‘2023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58세 최고령 참가자로 나가기도 했다. 비록 수상은 못 했지만 2차 예선까지 합격해 개인적으로 박지영 모델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평가받고 싶었고,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





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2023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2차 예선에서 참가자들 모두 탑 브라와 스포츠레깅스로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장기 자랑을 보여주는 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록키 음악을 틀고 복싱을 보여주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비록 수상은 못 했지만, 딸보다 더 어린 젊은 모델들과 나란히 경쟁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큼니다.”

**한 번의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낳고**

모델의 상징은 아무래도 당당한 워킹일 것이다. 박지영 모델에게도 ‘모델 워킹’은 모델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자 건강을 되찾게 해준 특별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바른 걸음걸이는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시나요? 누군가의 걷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걷냐에 따라 인상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보이기도 해요. 걸음걸이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걸음걸이가 병을 만들 수 있듯이 바른 걸음걸이는 건강미와 자신감을 만들죠. 자식들 다 성장시키고 여유가 생긴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위한 취미로 모델 워킹을 추천해요.”

자신감 넘치는 워킹을 선보이며 멋진 런웨이를 보여준 박지영 모델은 밀라노 패션위크, 파리 패션위크 등 해외 패션위크를 시작으로 올해 모델로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또 다른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모델과 석사과정에 합격한 것. 앞으로 모델로서 더 큰 역할을 펼치기 위해 모델 지도자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모델 활동과 더불어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꿈을 펼치는 데

결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박지영 모델. 10%의 기적으로 런웨이에 오른 그의 모습이 참으로 빛난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런웨이를 당차게 걸어갈 박지영 모델을 응원한다.

“난소암 3기 10%의 생존율을 이겨낸 것처럼 모델로서 또 앞으로 지도자로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1%가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강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with IBK> 독자분들도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글로벌 1%가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강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 IBK항공 기업

## IBK항공 마포

AI기반 진로교육 플랫폼



메이저맵

메이저맵은 산재된 입시정보를 표준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초개 인화 서비스다.



major.imweb.me

## IBK항공 구로

재활의학과 의사가 만든  
리커버리 풋웨어



(주)바크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모여 일상에서 편안하게 신으면서 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풋웨어를 개발했다.



barc.co.kr

## IBK항공 부산

스스로 하는 쉬운 수출



(주)소프트브라운

(주)소프트브라운은 대한민국의 좋은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소 포고를 운영한다.



sop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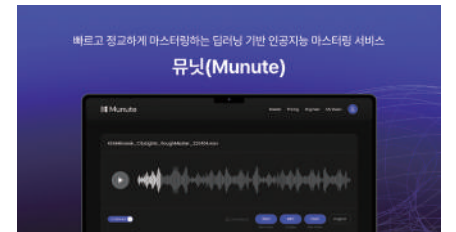
## IBK항공 대전

고품질 AI 오디오 마스터링 솔루션



(주)사운드플랫폼

(주)사운드플랫폼은 인공지능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마스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munute.com

# IBK항공 마포

## 시 기반 진로교육 플랫폼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국의 수많은 학과와 직업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입시전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른바 ‘정보의 단절’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저맵은 진로탐색 웹 서비스 ‘메이저맵’과 진로설계 모바일솔루션 ‘웨이메이커’를 출시했다. 먼저 ‘메이저맵’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학과 및 수업자료를 수집해 시로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 관계도와 학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학과지도’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웨이메이커’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페이퍼워크 기반으로 작성해오던 진로활동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자기이해 검사 → 학과 및 직업탐색 → 로드맵 설계’ 프로세스는 학생들의 진로 관련 보고서 작성에 매우 효과적이다. ‘메이저맵’은 현재 46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웨이메이커’는 출시 1년 만에 130개 고등학교와 유료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진로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 IBK항공 구로

## 재활의학과 의사가 만든 리커버리 풋웨어



(주)바크의 BARC는 ‘Balance + Arch + Rehabilitation + Comfort’의 약자로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일상의 균형과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든 일상화 브랜드다.** 누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도 일상 속에서 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슬리퍼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골반, 허리, 무릎, 발목, 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진료하며 습득한 임상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부터 개발/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다. 사람마다 걸음걸이의 모양,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걷는 순간마다 체중이 실리는 부위를 Gait Analysis를 통해 배분하여 충격 흡수 효과와 몸의 중심이 되는 아치를 잡아주고, 다리 근육 스트레칭 및 발목 안정성까지 지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슬리퍼를 판매하고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잡힌 발걸음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용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주)바크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부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IBK항공  
부산

소포고를 통해  
직접 해보는  
수출



국내 온라인 상품판매자는 7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97%의 셀러는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단 3%만이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가운데 89%는 아마존,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플랫폼은 언어는 물론 통관 신고, 복잡한 입점 과정, 높은 보증금, 높은 연회비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셀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주)소프트브라운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포고에서는 해외 마케팅, 플랫폼 관리, AI 자동번역, 라이브 판매, 달러 결제, 자동 수출신고, 해외 운송 등 여러 문제점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포고의 주요 타겟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30대 중반의 여성 고객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력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와 상품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후 미주 및 일본, 유럽 시장 등 점진적인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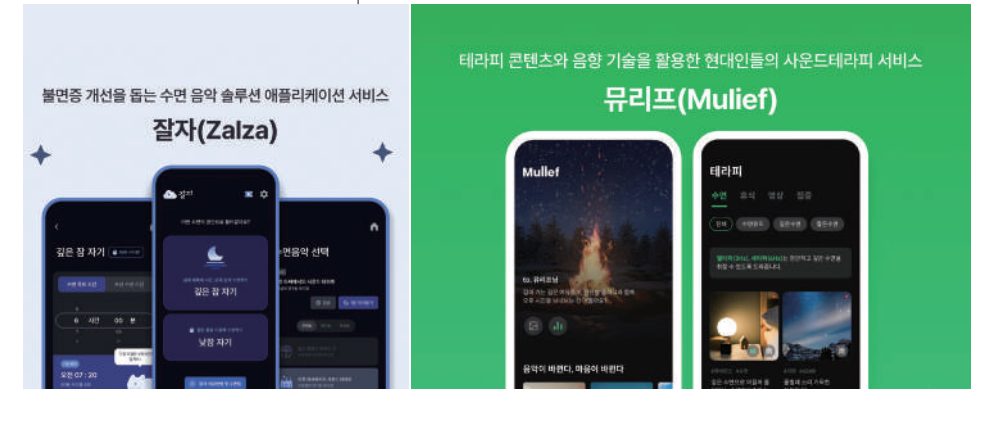


IBK항공  
대전

고품질 AI  
오디오 마스터링  
솔루션



사운드플랫폼은 인공지능 마스터링 솔루션인 **뮤닛 (Munute)**과 슬립테크 앱 서비스 **잘자(Zalza)**, 기능성 사운드테라피 앱 서비스 **뮤리프(Mulief)**를 운영하고 있다. 뮤닛 (Munute)은 상업 음원 빅데이터의 딥러닝 학습을 통해 음악, 영상 등 오디오가 포함된 모든 콘텐츠를 상업 수준의 음원으로 가공하는 고품질 AI 오디오 마스터링 솔루션으로, 음원뿐만 아니라 영상 오디오의 노이즈 제거 및 소리 증폭 등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모든 사운드에 관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자(Zalza)는 수면 사이클을 기반으로 전문 음악 연구원들이 작곡한 수면 음악을 숙면 상태의 뇌파동조를 유도하는 핑크 노이즈와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뮤리프는 자사 자체 뇌파 주파수 변조기술인 F.O.R. Beats와 입체음향 기술이 적용하여 된 테라피 음악을 통해 사용자의 심신 안정, 집중력 증강 등을 돕는 서비스이다. (주)사운드플랫폼은 지난해 여러 투자은행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으며, 문화콘텐츠 공모전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프로탄산러마저

## 솔깃한

### 콜라의 첫 페이지

인생에 있어 각자만의 소울푸드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터. 그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음식이 콜라다. 목혔던 체증까지 싹 내려가는 청량한 탄산 한 모금. 이토록 완벽한 음료 콜라의 시작을 확인해보자.



# Coca-Cola



### 약국에서 판매된 코카콜라

어쩐지 힘든 날이면 자연스레 탄산음료가 생각난다. 그중 콜라만 먹는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프로탄산러들에게 코카콜라는 없어선 안 될 음료 중 하나다. 속이 더부룩할 때는 물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콜라가 과거, 실제 약으로 통용됐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콜라를 발명한 존 펨버턴은 약사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 후 희망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일종의 자양강장제인 ‘프렌치 와인 코카’ 시럽을 만들어 판매했다. 콜라나무 추출물과 알코올을 합친 것으로 판매 초기에는 큰 인기를 얻었으나, 알코올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존 펨버턴은 와인에서 알코올을 제거한 뒤, 탄산수로 희석해 새로운 음료를 제조했는데 그것이 코카콜라의 시초다. 그때 만들어진 콜라에 실제로 두통이 사라지는 효능이 있었는데 바로 마약 성분인 코카인이 함유돼 있었기 때문이다.

### 137년을 이어온 로고

만인의 사랑을 받는 코카콜라는 현재 200여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씩, 초당 2만 잔 넘게 팔리고 있지만, 콜라가 처음 출시된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많은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알코올을 제거하고 탄산수에 콜라나무 원액을 섞어 존 펨버턴의 약국에서 잔당 5센트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5~7잔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 이에 존 펨버턴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다. 바로 사업 파트너이자 회계 담당이었던 프랭크 로빈슨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프랭크 로빈슨은 코카나무와 콜라나무의 만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조로운 ‘콜라’의 이름을 ‘코카콜라’로 명명했다.

현재 청량함과 북극곰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로고 역시, 1887년 프랭크 로빈슨의 독특한 필체를 활용한 스펀서체 로고로, 코카콜라는 변하지 않는 맛과 추억으로 137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 참고자료

코카콜라의 낯선 출생의 비밀, ‘마시즘’  
김 빠진 콜라 재활용법 5가지, 정책브리핑



### 김빠진 콜라 활용법

#### 화장실 물 때 제거

변기 또는 세면대 등에 콜라를 부은 후 3시간 뒤 청소하면 물때가 말끔히 제거된다.

#### 해충 제거

콜라를 분무기에 담아 식물 앞 걸면에 뿌리면 해충 제거에 효과적이다.

#### 주방 기름때 제거

휴지에 콜라를 적신 후 가스레인지나 후드 등의 기름때를 닦아내면 때가 사라진다.

#### 고기의 잡내 제거

돼지고기를 콜라에 20분 동안 담가두면 잡내도 사라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덕담의 완성은 ‘갓벌’한 맞춤법

To. ○○○ 대리님!

대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대리님과 함께라면 왠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잘 쇠시고 다음 주에 뵈요~

From. ○○○

이번 새해, 어쩐지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진심이 담긴 덕담 한마디 어떠세요? 마음을 울리는  
덕담이 한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감동 가득한 덕담에 ‘완벽함’이 빠질 수 없죠!

**되길(X)**    진심을 담아 새해 인사를 남겼지만, 맞춤법이 틀렸다면? 그만큼 민망한 상황이 없죠. 돼는 ‘되어요.’의 준말로, 사용법이 헛갈린다면 ‘되’를 대신해 ‘하’를, ‘돼’ 대신 ‘해’를 넣어 발음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바랍니다(X)**    바라다는 ‘바라’의 기본형으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나 희망 등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다는 ‘바래’의 기본형으로 색이 변하거나 빛깔을 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소망을 나타낼 땐 바라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웬지(X)**    ‘웬지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요.’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웬지는 ‘왜인지’를 줄인 말로, ‘왜 그런지 모르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웬’은 웬지를 제외하고는 쓰이는 일이 없으니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쇄(X)**    ‘명절 잘 쇠세요.’라는 말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때문에 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쇠다.’의 활용형을 알고 있으면 쓰임을 단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쇠다.’의 활용형인 ‘쇄’는 ‘쇠어’가 축약된 말로 ‘명절을 쇠다.’, ‘이번 명절은 어디서 쇠?’로 쓸 수 있습니다.

**뵈요(X)**    설 연휴를 앞두고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필수 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뵈요’와 ‘뵈요.’가 헛갈려 문자를 하다 멈칫하고 ‘뵈겠습니다.’라고 고쳐 쓴 적 있으실 텐데요. ‘뵈’ 자리에 ‘뵈어’를 넣어 본 후, 쓰임이 적합하면 ‘뵈’를, 어색하다면 ‘뵈’를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01

###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실시

2024년 1월 15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은행은 미래경쟁력 확대를 위한 데이터 본부 신설, 신탁 및 글로벌 IB 등 비이자 부문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고객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을 위해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전략 영업센터를 우선 설치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 맞추어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05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실시, 신임 부행장에는 박일규 본부장이 디지털그룹장으로, 오은선 본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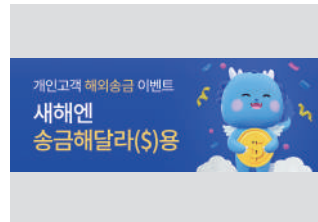
(왼쪽부터) 박일규 부행장, 오은선 부행장



02

### 개인 및 외국인 고객 해외송금 이벤트 실시

오는 3월 31일까지 개인 및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과 송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새해엔 송금해 달라(\$)' 이벤트는 기업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건당 미화 5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보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해엔 송금해 Dream(드림)' 이벤트는 기업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건당 미화 500달러 이상 해외 급여송금을 보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쿠폰, GS편의점 쿠폰 지급 등은 물론, 송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03

### 탄소중립 목표 국제 인증 획득

2024년 1월 19일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로부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인증받았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선언',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단계적인 준비를 거친 끝에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이는 정책 금융기관 최초로 이룬 성과로, 탄소중립 목표에 공신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차 인증은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업은행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기업은행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건물 에너지 진단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중소기업 녹색 전환 지원 등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도 지속 힘쓸 예정이다.



04

###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육성

2024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을 최종 선발해 1월부터 5개월간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에는 950여 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약 1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80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이에 'IBK창공'은 선발기업에 투·융자 금융지원, VC를 통한 투자 연계, 글로벌 IR,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및 판로개척 지원, 산·학·연 기술매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IBK창공'은 지금까지 총 707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17개의 육성기업이 'CES 2024 혁신상'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05

### 발달장애 작가 전시회 'IBK드림윙즈展' 개최

2024년 2월 23일까지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육성·지원을 위한 전시회 'IBK드림윙즈展'을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개최한다. 기업은행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미술에 재능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전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IBK드림윙즈 프로젝트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했다. 이에 해당 작가들은 1:1 미술 교육과 전시회 참여하는 등 전문 작가 양성 과정을 밟았다. 이번 'IBK드림윙즈展'은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의 지난 9개월의 여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전시로, IBK드림윙즈 1기에 선발된 10명의 작가와 발달장애인 멘토작가 4명 등 14명이 참가, 총 7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06

###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2024년 1월 2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시장 이상우),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와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공급, 대전시는 사업 총괄 지원, 대전도시공사는 200억 원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 연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자 2.25%p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 다른 그림 찾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다른 그림 찾기!  
우리의 뇌를 깨워볼까요?



위의 두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참여 기간** 2024년 2월1일~2월 15일  
**참여 방법** QR코드로 로그인해 다른 곳을 표시한 사진과 개인 정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2024년 2월 20일

##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발표!



송○희(3\*\*2) 이○우(5\*\*7) 최○향(0\*\*4)  
강○미(3\*\*6) 김○정(9\*\*7)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 <with IBK>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에 자신 있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2024년 2월 1일~2월 15일

참여 방법 : 왼쪽 QR코드로 촬영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2024년 2월 20일

## <with IBK> 에서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IBK기업은행의 매거진 <with IBK>는 호별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표지에 개성 넘치는 독특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with IBK> 2월호 속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발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힌트: 정답 4곳\_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참여방법**  
STEP1. <with IBK>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총 4곳, 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STEP2. 캐릭터를 찾은 후 카메라로 촬영해주세요.  
STEP3. 상단 QR코드 접속 후,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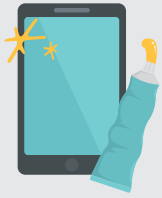
뒷면에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여러분의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일상을 주진 않죠.

혼자만의 시선이 아닌 여럿의 시선으로  
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시간 속에서 유명하다면  
우릴 감싸고 있던 거대한 시련들은  
결국 눈처럼 녹아 희고 깨끗한 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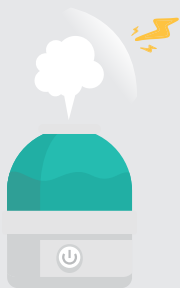
### 새해처럼 빛나는 액정을

지문과 흠집으로 얼룩진 스마트폰 액정을 안경 닦이로 닦아보지만, 문자나 전화 한 통에 금세 더러워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치약이다. 부드러운 천에 치약을 짰 뒤 스마트폰 액정을 조심히 닦아주면 방금 구매한 듯 매끈하고 반짝이는 화면을 마주할 수 있다. 치약의 불소가 연마제 역할을 해주어 잦은 터치에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 무릎 늘어난 바지 원상복구!

애착 바지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튀어나오는 무릎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애착 바지를 더 오랫동안 입고 싶으시다면 소주를 활용해보자. 안 쓰는 손수건이나 얇은 천을 늘어난 부위에 댄 뒤, 분무기에 소주를 담아 뿌린 후 다림질해주면 바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 겨울철, 번개맨 탈출법!

문고리를 잡을 때는 물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정전기 때문에 불편한 겨울이다. 정전기로 인해 세팅한 머리도 금세 부스스해지는 날씨가.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바른 핸드크림도 효과가 없다면 미니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높여보자. 또 문고리를 잡기 전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 촉촉한 손을 만들거나, 손톱을 문고리에 먼저 갖다 댄 후 잡으면 정전기를 피할 수 있다.



# 알쓸생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속 꿀!팁!

알면 돈이 모이는 생활 속 꿀팁을 정리했다.  
쉽고 간편한데 돈까지 절약할 수 있다니!  
나의 생활을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생활 속 노하우다.

정리. 편집실



### 호텔처럼 반짝이는 화장실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에 당황스러웠던 적 있다면 집중하자. 열심히 청소기를 돌려보지만 화장실의 물때는 단 시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 이때 린스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 호텔처럼 반짝이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분무기에 물과 린스를 섞어 세면대 손잡이에 뿌린 뒤 수세미로 닦고 물을 뿌려주면 반짝이는 수전이 탄생한다.



### 전자레인지 속 음식 냄새, 안녕~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전자레인지지만 생선, 치킨 등 냄새나는 음식을 돌리고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전자레인지에서 악취가 날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식초와 소주다.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그릇에 담은 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면 수증기로 인해 목이 뜨거워지는데 이때 소주로 적신 행주를 이용해 들러붙은 찌꺼기를 닦아내면 목은 냄새까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 칼날이 무뎠을 때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팁이다. 당근, 무, 고기 등 단단하고 질긴 재료를 주기적으로 썰다 보면 칼날이 무뎠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에서 칼을 갈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때 치약과 쿠킹 포일만 있으면 현 칼을 새 칼처럼 만들 수 있다. 뭉툭해진 칼날 부분에 치약을 바른 후 쿠킹 포일을 공처럼 구긴 다음, 포일 사이에 칼을 넣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칼끝이 금세 날카로워진다. 만약 쿠킹 포일이 없다면 머그잔 밑바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BK기업은행

금융의 본질은  
리스크를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증개 주식 지원

**M&A 생태계 조성**

광고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1길 10-10 11층 (02) 4004-0631 | 금융상품 관련 계약 및 상담은 반드시 고객센터 (11) 1144-1144 | IBK기업은행은 금융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리하면 어떤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02-725-7400, e-mail: ibk@ibk.co.kr